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일 시 : 2011. 10. 11(화) 14:00~18:00

▷장 소 : 수원 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

▷일 시 : 2011. 10. 11(화) 14:00~18:00

▷장 소 : 수원 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 식순

제1부 개회

• 사회 : 주인군(수원문화원 사무국장)

국민의례
축사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제2부 주제발표

• 사회 : 박환(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4:15 ~ 14:45 정조대 화성행궁의 기능과 의미

발표 : 김선희(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 이달호(수원박물관 관장)

14:45 ~ 15:15 화성행궁의 훼손과 식민통치기구의 배치

발표 :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토론 : 차선희(한국방송통신대학 강사)

15:15 ~ 15:30 휴식 및 자리 정돈

15:30 ~ 16:00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발표 : 김준혁(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 : 윤유석(한국외대 문화컨텐츠학 박사)

16:00 ~ 16:30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발표 :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토론 : 윤여빈(경기문화재단 연구원 경기학연구실 연구원)

16:30 ~ 16:45 휴식 및 자리 정돈

제3부 종합토론

• 사회 : 강진갑(경기문화재단 문화협력실장)

16:45 ~ 18:00 종합토론

축 사

안녕하십니까! 수원문화원장 염상덕입니다.

오늘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제8회 수원학연구소 정기학술세미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편집위원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해 앞으로 수원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조사 · 제발 · 전승을 위한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원의 옛 모습들을 재조명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의 모습을 알리고 관광자원화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조선읍성철거시행령으로 수원 화성행궁의 파괴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수원 화성행궁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화성행궁 파괴 100년 복원 100년』이라는 대주제로 4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화성행궁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수원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콘텐츠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원학연구소가 앞으로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발전하여 그 위상을 떨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문화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수원문화원장 염 상 덕

<<목 차>>

제1주제 정조대 화성행궁의 기능과 의미

김선희(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4

제2주제 화성행궁의 훼손과 식민통치기구의 배치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20

제3주 제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김준혁(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35

제4주 제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49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김선희(역사문화연구소)

머리말

1. 화성행궁의 건립배경

2. 화성행궁의 기능

맺음말

머리말

화성행궁은 정조대에 건설된 화성 신도시의 중심시설이었다. 정조는 현릉원을 조성하기 위해 1789년 기존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이후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다. 신도시에는 행궁과 성곽이 축조되었고, 농업과 상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 기반시설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정조의 친위군영이라 할 수 있는 장용외영을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기능이 함께 갖추어진 경기 남부의 중진(重鎭)으로 발돋움하였다. 정조의 적극적 지원과 당대 학자들의 지식이 결합되어 조성된 화성 신도시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甲子年構想)’에 따라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화성 신도시 중심에 화성행궁이 자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화성행궁에 대한 연구는 화성 신도시 건설의 일부로만 이해되다가¹⁾ 근래 행궁의 복원과 활용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들²⁾이 나오면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궁에서 이루어진 정조대 행사와 관련한 연구,³⁾ 행궁에 설치된 조경시설물을 고찰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⁴⁾ 그리고 행궁의 위치를 풍수지리와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⁵⁾를 비롯하여 행궁의 건설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행궁을 공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연구,⁶⁾ 행궁

- 1)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 2) 朴彦坤, 「水原 華城行宮의 復元을 위한 基礎的 研究」, 『弘大論叢』 15, 1984. ; 水原華城行宮復元推進委員會, 「學術發表會誌」 제1회, 1989. ; 水原市, 『華城行宮 復元事業을 爲한 說明會』, 수원시, 1993. ;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화성행궁 활용방안 연구」, 『수원시 문화정책 보고서』, 2001. ; 정조사상연구회, 「華城行宮의 再照明」 『제40회 수원 '화성문화제' 화성행궁 복원기념 학술대회』, 2003. ; 최홍규,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현황과 복원·보존 방향 - 특히 화성의 복원·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水原文化史研究』 6, 2004. ; 최홍규,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화성행궁의 역사적 의의」 『화성학연구』 1, 2004 ; 김준혁, 「수원문화의 중심 화성행궁」, 『수원문화사연구』 6, 2004. ;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인문콘텐츠』 제8호, 2006.
- 3) 최여진, 「華城陵幸圖에 대한 繪畵性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2. ; 허용호, 「화성행궁과 전통 연회」,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3. ; 강민영, 「奉壽堂 進饌과 洛南軒 養老宴의 音樂的 考察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 4) 김영모, 「화성행궁 조경시설물의 고증 및 복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2005.
- 5) 鄭盤石, 「水原地域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華城行宮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 논문, 2003.
- 6) 수원시, 『수원 화성 행궁』, 수원시, 2003. ;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3, 국립고궁박물관, 2010.

복원의 문제점을 진단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⁷⁾

화성행궁에 대한 기본 자료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비롯한 『정조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와 각종 ‘의궤류’, ‘읍지류’ 등이 있다.⁸⁾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화성행궁의 건립배경과 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행궁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과 연계하여 행궁의 건립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조의 원행 기간 동안 행궁에서 시행된 여러 행사와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기능을 알아보고, 평소 화성유수 집무 공간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행궁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화성행궁에서 치러진 혜경궁 회갑연의 다양한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주목해보았다. 또한 정조의 계속된 원행 중 각 건물들의 이용 현황과 평소 유수부 건물로써의 기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1장에서는 행궁의 건립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원을 이읍하는 과정에서 행궁이 조성되던 시기, 화성유수부로의 승격과 을묘원행을 앞두고 행궁이 증축되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장용외영이 행궁에 설치된 시기도 함께 알아볼 것이다. 2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행궁의 조성 배경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행궁의 건물별 기능을 재분석하고자 한다. 정조대 화성행궁의 조성과정을 통해 화성 신도시에서 화성행궁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

1789년 사도세자의 묘역인 영우원을 원래 수원부 읍치에 천봉하고, 수원은 팔달산 아래로 이전되었다. 수원은 1793년 화성으로 개칭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다. 이후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화성을 축조하면서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정조는 1804년(甲子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에서 노후를 맞으려는 ‘갑자년 구상’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사도세자를 추존하고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높임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화성행궁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다.

화성행궁은 현릉원을 조성하고 기존 수원부 읍치를 이전하면서 관아로 신축된 이후 찾아지는 원행에 대비하여 관아를 개수 및 증축하면서 완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화성행궁이 건립되는 시기에 따라 건립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수원 읍치 이전기

『궁궐지』에 의하면 조선시대 행궁은 화성행궁을 포함하여 모두 8개가 기록되어 있다.⁹⁾ 이 가운데 의주행궁과 화성행궁은 관아로 사용되는 건물을 행궁으로 사용하였다. 의주 행궁이 임진왜란(1592년, 선조 25)때 피란을 가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화성행궁은 행궁이 조성된 이후 원행시마다 임금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

7) 한영우, 『화성복원을 위한 시설물 고증 및 방향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006

8) 연대기자료는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華城城役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水原府邑誌』, 『華城志』 등이 있으며, 정조대 간행된 사료는 『水原旨令謄錄』, 『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종대 제작된 『華城重記』도 중요한 사료로서 행궁의 보수 및 개축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宮闕志』, 권5, 都城志, 2000.

- 피난을 위해 세워진 행궁으로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강화부·광주부·양주행궁이 있고, 이 보다 멀리 떨어진 전주·부안·의주에도 유사시에 대비한 행궁들이 세워졌다. 온양행궁은 임금이나 왕비가 휴양을 위해 세워진 행궁이고,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행궁으로 만들어졌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총 66회 능행을 실시하였다. 그 중 영우원과 현릉원은 총 횃수의 절반에 가까운 31회 방문하였다.¹⁰⁾ 특히 1789년 영우원을 현릉원으로 천봉한 이후에는 1800년 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7박 8일까지 원행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정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화성행궁에서 머물렀다. 이후 원행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원행에 동원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원부 관아를 계속해서 보수하거나 증축하면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화성행궁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정조 13) 7월 11일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1725~1790) 상소에 따라 영우원 천봉이 결정되고, 그 날로 현릉원 조성을 위한 구읍 이전 사업을 담당할 관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현릉원이 조성된 화산(花山) 일대에 자리하던 기존 수원부 읍치는 현재 팔달산 아래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신읍 수원에는 새로운 관아들이 서둘러 건축되었다.¹¹⁾ 정조는 수원 신읍이 조성되던 1790년(정조 14) 2월 9일 현릉원 조성 이후 첫 번째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행궁의 동헌을 장남헌(壯南軒),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堂), 사정(射亭)은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이름 짓고 모두 임금의 글씨로 현판을 써서 걸도록 하였다.¹²⁾ 같은 해 5월에는 기타 건물을 비롯한 창고와 행랑이 신축되어 총 340여 칸의 건물이 완성되었다.¹³⁾ 1789년(정조 13) 7월부터 1791년(정조 15)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수원의 신읍이 만들어지면서 수원부 관아가 들어섰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읍의 관아 곳곳에 정조의 친필 현판을 걸도록 함으로써 행궁의 위상은 물론 왕실의 권위를 함께 높이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화성 건설은 사도세자의 묘역으로 조성된 현릉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 정조는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과 성곽을 건설하여 서울 남부의 외곽 방어체제를 갖추고 상업·농업 등의 자족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대도시로 키우고자 하였다.¹⁴⁾ 정조가 꿈꾸었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에 화성행궁도 함께 탄생한 것이다.

2) 행궁 증축기

정조는 능행길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군사훈련을 지시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보강하였다.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여 새로운 능행로로 이용하고, 화성·광주 등 거점도시를 상업도시로 육성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1793년 화성유수부 설치와 1795년 광주유수부 설치에 개성·강화·화성·광주로 구성되는 사도(四都)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조대 후반 수도권 지역이 제도적으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⁵⁾

수원이 이렇게 서울 남쪽의 대도회로 급성장한 것은 정조의 장기적 정국 구상 가운데 하나였다. 정조는 대도회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화성을 쌓고, 수원을 대도시로 키우기 위한 여러 시책을 계획하였다.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군사 요충지로 급부상되었으며, 임금이 머무는 행궁을 지어 직할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유수부라는 직할도시에 맞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설물은 화성이다. 그러나 화성

1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44~45쪽, 1997.

11) 『水原旨令謄錄』 정조 13년 9월 26일

12) 『正祖實錄』 권29, 정조 14년 2월 庚申

13) 『正祖實錄』 권30, 정조 14년 5월 丁亥

1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69쪽, 1996.

15) 김문식, 「조선 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경기논단』 6, 경기개발연구원, 27~28쪽, 1997.

건설에 앞서 대도회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시초로 화성행궁을 건립한 것이다.

현릉원 조성 이후 매년 치러진 원행 기간 동안 정조의 임시 거처는 화성행궁이었다.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정조는 수원의 역사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수원을 화성으로 개칭하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에 걸도록 하였다. 기존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유수는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유수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이때 유수는 정2품 이상, 판관은 5품 음관(陰官)으로 의망(擬望)하도록 하였다.¹⁶⁾ 이러한 조치는 수원이 당시 4유수부 가운데서도 정2품 이상의 대신이 총찰하는 가장 상위의 유수부로 서울 다음 가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¹⁷⁾

정조는 화성에 유수를 둔 이유로 선침을 수호하고 행궁을 보필하기 위함이라고 슬회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유수부 위상에 걸맞는 인물로 잠시 물러나 있던 그의 측근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초대 화성유수에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해부터 화성 성역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행보는 화성 신도시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성행궁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신도시 화성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성행궁은 1789년 신축된 이후 혜경궁의 회갑연에 대비하여 1794년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화성행궁이 신축된 후 계속해서 증축되었다는 것은 향후 갑자년 구상에 대비하여 임금과 왕실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아래 시행된 것이다.

정조는 원행기간동안 행궁에 머물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현릉원을 다녀오고, 화성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매화시방을 관람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군복을 갖추어 입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에서 직접 말을 타고 신평루를 통해 행궁을 드나들었다.¹⁹⁾ 정조는 이러한 군사행렬을 보여줌으로써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을 것이다. 또한 신평루에서 화성부의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 사민(四民)들에게는 쌀을 나누어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진휼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가 평소 원행 길에서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대민정책을 펴려던 그의 의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정조 자신이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소망을 회갑연을 맞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는 화성행궁 건물 중에서 열린 구조로 지어진 낙남헌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낙남헌은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옛 득중정 자리를 옮기고 그 터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낙남헌은 넓은 대청마루의 삼면에 분합을 설치하여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분합을 모두 올려 마루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하였으며 앞마당에는 담장을 설치하여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조대에 이르러 왕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임금과 신료,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상하동락(上下同樂)’의 경지를 보여주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¹⁾ 결국 정조가 꿈꾸던 백성들과의 소통공간이 신도시 화성의 행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6)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월 丙午

17) 유봉학, 앞의 책, 150쪽, 1996.

18) 『正祖實錄』 권37, 정조 17년 5월 丙辰

19)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1795년 윤2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20)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52~55쪽, 1997.

2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75~76쪽, 2001.

이후에도 낙남헌 앞마당에서는 화성의 중요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문무과 별시를 비롯하여 화성성역이 끝난 후 화성 공역에 참여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 화성부민이 모두 모여 성대한 낙성연을 거행하였으며 화성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호계행사까지 치러졌다.

화성행궁의 낙남헌은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임금은 물론 신료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이어졌다. 화성행궁은 지방의 행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국가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정조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

3) 장용외영 설치기

화성행궁이 외형적 건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행궁에서 치러진 다양한 행사들과 행궁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의 운영 또한 행궁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행궁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면서 동시에 장용외영이 설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793년 장용외영의 창설은 곧 왕권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군의 편제를 오위제(五衛制)로 전환하여 중앙 군영을 개혁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장용외영을 설치한 것에서 정조의 왕권 강화 의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수원은 총융청(摠戎廳)의 중영(中營)이었는데 이를 독립시켜 장용외영을 설치함으로써 총융청의 규모를 크게 약화시켰다. 장용외영을 화성에 설치함으로써 경기지역 방어의 주력이었던 총융청과 수어청의 세력을 축소시킨 것이다.²²⁾

정조는 1791년 현릉원 원행부터 용복(戎服)이나 군복(軍服)을 입고 능행을 실시하였다.²³⁾ 원행 때마다 장용외영의 군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정조부터 모든 대신들이 군복을 입고 일사불란한 군사행렬을 지어 수원에 왕래하였다. 이후 수원에서는 군령에 따라 군사훈련을 사열하였던 것이 정례화되기도 하였다.²⁴⁾

장용외영의 병력은 178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790년(정조 14)에 1300여명, 화성이 유수부로 승격되는 1793년(정조 17) 2100여명의 군사가 충원되었다.²⁵⁾ 이것은 수원 이읍 이후 화성행궁이 조성되던 시기와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을묘원행을 앞둔 시기에 장용외영 편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용외영이 거처하던 군영도 1794년 신평루 좌우행각 21칸과 남북군영행각 좌우익랑 38칸이 새롭게 지어졌다. 신평루 누문 6칸과 남북군영행각 24칸이던 규모가 거의 2배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장용외영 군사의 충원에 따른 조치였던 것이다.

1793년(정조 17) 10월 비변사에서 올린 「장용외영군제절목」에 의하면, 보군(保軍)은 13哨로 하고, 정군은 다시 3사로 편제하여 전사(前司)와 후사(後司)는 각 5초, 중사(中司)는 좌초·중초·우초의 3초로 마련하였다. 장령(將領)은 내영과 마찬가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3사(司)의 파총(把摠)은 경내에서 경력이 있는 당상 무관으로 차출하고 각 초(哨)의 초관(哨官)은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였다.²⁶⁾ 보군은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행궁을 숙위하기 위한 번을 썼다. 13초의 군사를 5번으로 편성하여 15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11월 16

22)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22, 일지사, 201~204쪽, 1996.

23)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己丑.

2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52쪽, 1996.

25) 이방섭, 「정조의 장용외영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55~56쪽, 2010.

26) 초관 중 일곱 자리는 守門將·部將으로 추천받은 자를 임명하고 여섯 자리는 편제를 정하되 선전관·수문장·부장 등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전직 朝官으로 參上·參下와 出身을 통틀어 차출한다.

일부터 전사를 시작으로 번을 서도록 하였다. 또한 친군위도 좌열과 우열로 번을 나누고 외영에 주둔하면서 행궁을 호위하도록 하였다.²⁷⁾

보군이 번을 설 때는 해당 사의 파총과 각 초의 초관이 군사를 통솔하도록 하였다. 이때 파총은 평소 장령이 입직(入直)하던 곳에 입직하고 초관은 각각 자신의 군사들이 번을 든 곳에 배치되었다. 절목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군영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번을 서는 장소는 편의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북군영 행각은 이미 장령의 처소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궁 내에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으며 1794년 증축 이후부터 우열은 북영, 좌열은 남영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²⁸⁾ 정조대 강력한 군권의 상징인 장용외영이 행궁의 정문 좌우에 배치되어 화성행궁의 숙위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궁은 왕이 거처하는 침전 공간과 정무를 보는 편전구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화성행궁에는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는 행사공간이 더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장용외영의 숙직시설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행궁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화행궁은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로 피난하여 기존의 판아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1631년(인조 9)에 건립되고, 1711년(숙종 37)에 증수되었다.²⁹⁾ 이후 강화행궁은 1858년(철종 9)까지 종묘의 신전을 모시기 위한 장녕전, 외규장각, 봉선전 등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건립되었다. 남한행궁은 1626년(인조 4) 내행전(內行殿) 상궐(上闕) 72칸, 외행전(外行殿) 하궐(下闕) 154칸이 건립되었다.³⁰⁾ 이후 1829년(순조 29)까지 조성되는 건물들 역시 강화행궁과 마찬가지로 공해와 누정 및 종묘사직 봉안처 등의 건물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숙종대 국가의 보장처는 남한산성과 강화가 두 축을 이루고 있었다. 양란을 겪은 이후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에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행궁 건물 대부분은 생활공간과 제향공간만 새로 건립되었을 뿐, 행궁의 부속 건물에 군대가 직접 위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화성행궁의 대문 역할을 하는 신평루 좌우에 장용외영의 주둔지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행궁의 숙위는 물론 그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장용외영의 설치는 현릉원과 화성행궁 및 화성을 수호하고, 원행시 임금을 호위하는 친위군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갑자년 구상에 따라 임금이 상왕으로 내려온 후 그의 거처를 당시 군영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용외영이 수호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 화성행궁의 기능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행궁의 건립배경에 따라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행궁의 주요 건물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¹⁾ 우선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27) 『正祖實錄』 권38, 정조 17년 10월 辛巳.

28) 『華城城役儀軌』 附編1, 公廨, 南北軍營行閣

29)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8~23쪽, 2001.

- 이하 강화행궁과 남한행궁에 관해서는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30) 柳承宙, 「南漢山城의 行宮·客館·寺刹建立考」,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66~268쪽, 2003,

31) 다음은 『華城城役儀軌』에 실린 <圖說>의 <行宮全圖>와 부편 1의 <行宮>과 <公廨>에서 확인되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화성행궁 주요건물을 공간별로 나누어 정리한 현황표이다. -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5.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 낙남헌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행사의 공간, 행궁 정문인 신평루를 중심으로 행정·군사공간으로 구분하였다.

1) 봉수당(奉壽堂)과 생활 공간

봉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은 행궁의 안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을묘년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소로 이용되었던 장락당은 봉수당 남서쪽에 위치하고, 장락당 남쪽에는 원행기간 동안 정조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복내당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사용되다가 원행 기간 동안 편전의 역할을 담당한 유여택은 내당의 동쪽 담장 너머에 세워졌다.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봉수당은 행궁의 사방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봉수당은 평소 부사나 유수가 집무를 보는 동헌으로 이용되다 임금이 원행하였을 때에는 정당(正堂)으로 사용되었다. 수원부 동헌에서는 읍내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시험이 치러졌으며³²⁾ 수원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들이 봉수당에 설치된 게시판을 통해 전달되었다.³³⁾ 봉수당에서 치러진 가장 중요한 행사는 1795년에 치러진 혜경궁의 회갑연으로 당시 진찬 과정은 《을묘원행정리의례》를 통해 알 수 있다.³⁴⁾

장락당은 을묘 원행에서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봉수당 남쪽 벽에 잇대어 지붕이 겹쳐져 있는 독특한 구조의 동향 건물로 지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연회가 펼쳐지는 동안 혜경궁이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³⁵⁾ 회갑연에서 혜경궁이 침소인 장락당과 봉수당 사이를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당시 장락당 앞의 누문인 경룡관도 함께 세워져 중앙문을 통해 행궁의 정당으로 들어와 봉수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락당을 드나들 수 있었다.

복내당은 관아의 안채에 해당하는 행궁의 내당(內堂)이다. 복내당은 수원 읍치 이전에 맞추어 내사(內舍)로 창건되었다가 을묘년 원행 기간 중 정조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었다. 복내당은 평소 지방 관아의 안채이면서 임금의 원행시에는 침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궁의 가장 깊숙한 곳인 서남쪽 모퉁이에 지어졌다. 이런 이유로 다른 주요 건물들이 사방으로 통하는 문을 곳곳에 배치하였던 것과 달리 복내당의 서남쪽은 외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어 다소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여택은 평소 유수가 거처하다가 임금이 행차하면 머물던 곳이다. 유여택의 앞쪽 뒤편에는 공신루(拱宸樓)라는 누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누각에서 보이는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는 휴식공간[小次]으로 이용되었다. 임금의 원행기간 동안 편전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의 기능에 맞게 사방에 문이 만들어져 드나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유여택은 원행기간 동안 여러 대신 및 화성유수·암행어사를 접견하는 편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조는 을묘년 원행 첫날 유여택에서 시신(侍臣)들과 암행어사 홍병신(洪秉臣)을

구 획 공 간	건 물 명
봉수당과 생활공간	봉수당 · 유여택 · 복내당 · 장락당 · 경룡관
낙남헌과 행사공간	낙남헌 · 득중정 · 노래당 · 미로한정
신평루와 행정·군사공간	신평루 · 남북군영행각 · 외정리소 · 서리청 · 집사청 · 비장청

32) 『水原旨令謄錄』 정조 14년 8월 9일 / 『日省錄』 정조 18년 1월 辛丑
 33) 『水原旨令謄錄』 정조 14년 11월 3일 / 『正祖實錄』 권34, 정조 16년 1월 丁酉
 3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1, 筵說 正祖 19年 閏2月 13日
 35)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169쪽, 2002.

접견하고 원행기간 동안 치러질 각종 행사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³⁶⁾ 또한 윤2월 14일 새벽 신평루에서 진흥행사를 갖기에 앞서 유여택에서 행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신료들을 만나 진흥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³⁷⁾ 이외에도 정조는 유여택에서 과거 급제자들을 접견하기도 하였으며 1798년에는 시사(試射)·시방(試放)의 입격인(入格人)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⁸⁾

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은 궁궐의 일반구조와 마찬가지로 정문과 일직선의 구조로 지어져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평소 유수의 거처로 사용되거나 원행시에는 임금의 침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행궁의 내전 깊숙한 곳에 위치하였다. 동시에 행궁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수월하도록 많은 문들로 연결되어 있어 정당의 기능과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에도 적합하도록 지어졌다.

2) 낙남헌(洛南軒)과 행사 공간

화성행궁 건물 중에서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낙남헌이다. 행궁의 북쪽에 자리한 낙남헌에서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의 행사가 계속해서 펼쳐졌다. 낙남헌의 남쪽에는 휴식용 건물인 노래당, 동북쪽은 객사로 사용되었던 우화관³⁹⁾이 있었다.

1794년 옛 득중정 자리에 지어진 낙남헌에서는 혜경궁 회갑연을 기념하는 양로연, 문무과 별시, 화성 낙성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낙남헌에서 치러진 가장 중요한 행사는 혜경궁의 회갑연을 기념하는 양로연이었다. 전술하였듯이 당시 낙남헌의 기능적 측면은 『화성능행도』의 <낙남헌양로연도>를 통해 확인된다.⁴⁰⁾ <낙남헌양로연도>의 하단에는 시위군병과 양로연을 구경하고자 나온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들이 담겨있다. 특히 화면의 중앙에는 좌우의 끊어진 벽돌담을 그대로 표현하여 이동식 담장으로 넓어진 낙남헌 앞마당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회에 참여하는 신료는 물론 낙남헌 마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담장 주변에서 잔치의 흥겨움을 함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모두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낙남헌의 열린 마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⁴¹⁾

또한 을묘년 원행 기간 중에는 문무과 별시가 치러졌으며⁴²⁾ 화성성역 완료 후 성대한 낙성연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화성 공역을 지휘한 총리대신 및 낙성연의 초대 손님은 물론

36)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윤2월 10일

37)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筵說 윤2월 14일

38) 『壯勇營故事』 권8, 1798년 2월 3일

39) 于華館은 화성유수부의 客舍로 을묘 원행 기간 동안 치러진 문무과 별사에서 유생들이 대기하거나 답안지를 접수받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화성 각 건물들의 상량문을 봉안하는 제의를 올릴 때에는 헌관들의 대기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낙남헌의 북쪽에 지어졌던 강무당·무고·수성고과 함께 미복원 상태이다.

40) <화성능행도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9.8×64.5 cm, 고궁박물관 소장

- 이외에 <봉수당진찬도>, <득중정어사도>, <낙남헌방방도>를 통해 화성행궁의 당시 모습이 확인된다.

41) 낙남헌은 행궁에서의 공식행사가 열리던 공간으로 고종대까지 행사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1891년(고종 28)에 간행된 『화성증기』에는 낙남헌을 채우고 있던 각종 기물(器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행궁 주요 건물들의 돛자리[地衣] 구비현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낙남헌의 기물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낙남헌에는 <팔첩성도대병>을 비롯한 다양한 병풍들, 향로와 향합, 촛대 등의 기물, 의걸이[衣巨里]장과 방석, 돛자리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가 추구하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낙남헌이 고종대까지도 행사공간으로서 제 기능이 유지·관리 되어 오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 윤2월 癸巳

공사에 참여한 감독 이하 일꾼들, 각지에서 구경 온 백성들까지 모두 모여 화성 건설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⁴³⁾ 또한 정조는 낙남헌에서 화성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노고를 치하하는 호례행사를 가지기도 했다.⁴⁴⁾ 위의 행사들은 <화성성역의례>의 <낙성연도>와 <대호례도>를 통해 확인된다.

득중정은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다. 득중정에서는 화성부의 유생과 무사(武士)들의 시험이 여러 차례 치러졌다.⁴⁵⁾ 정조는 화성에 내려올 때마다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즐겼으며⁴⁶⁾ 을묘년 원행에서는 대신들과 활쏘기를 하고 매화시방(埋火試放)을 관람하기도 하였다.⁴⁷⁾ 활쏘기 장소인 득중정의 앞마당은 낙남헌과 하나로 연결되어 대규모의 행사가 있을 경우 낙남헌과 함께 상하동락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미로한정과 노래당은 휴식공간이었다. 미로한정은 팔달산 기슭에 세워진 행궁 후원의 정자(亭子)로 혜경궁의 처소였던 장락당과 정조가 머물던 복내당과 통하도록 지어졌다. 노래당은 낙남헌과 득중정을 연결하는 건물로 여러 가지 행사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낙남헌과 그 주변 건물들은 정조대 화합정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신분적 차별을 뛰어넘어 임금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3) 신평루(新豐樓)와 행정·군사 공간

화성행궁의 정문은 신평루이다. 그리고 그 좌우에 들어선 부속건물들은 행궁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공간들이다. 정문을 사이에 두고 남북군영행각이 자리하며 북군영의 서쪽은 집사청이 붙어있고, 남군영의 서쪽 담과 맞닿아 서리청이 세워졌다. 또한 서리청과 서쪽담을 사이에 두고 넓은 저장 공간을 갖춘 외정리소가 만들어졌다.

신평루에서는 을묘년 회갑연 기간 중 진흙 행사가 베풀어졌다. 정조는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성부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의 사민(四民)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는 행사에 친히 참석하였다.⁴⁸⁾ 평소 정조가 추구하던 백성들과 소통이라는 대민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화성행궁의 대표적 행정공간은 1796년 유여택의 동쪽 행각을 수리하고 빈희문 밖에 터를 닦아 건립한 외정리소이다. 원래 정리소는 임금이 행차 도중 유숙하는 곳에 사전에 도착하여 임시로 거처할 곳의 제반사항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 1789년 이후 매년 현릉원 원행이 실시되면서 수원의 재정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혜경궁 회갑연을 치르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정리소가 을묘년 이후 별도로 화성부에 외소(外所)를 설치하고 원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정리소의 1층은 헛간, 2층은 다락으로 구성된 2층 구조로 만들어졌다. 정리소 북쪽에는 환기를 위하여 살창[箭窓]⁴⁹⁾이 설치된 창고건물 기층헌(起層軒)이 새로 들어섰다. 정리소와 기층헌은

43) 『華城城役儀軌』 附編2, 甘結 1796년 10월 7일

44) 『華城城役儀軌』 권2, 犒饋 1795년 윤2월 13일

이외에 1796년 정월 21일, 8월 15일에도 犒饋가 이루어졌다.

45) 『正祖實錄』 卷34, 정조 16년 1월 乙未 / 『承政院日記』 冊 1713/91, 정조 17년 1월 丁未

46) 『正祖實錄』 卷29, 정조 14년 2월 辛酉 / 『正祖實錄』 권32, 정조 15년 1월 辛卯

47) 『正祖實錄』 卷42, 정조 19년 윤2월 丙申

48)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傳教 윤2월 13일

4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87~88쪽, 2001.

행궁의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당시 도성에 있던 장용내영은 1787년(정조 11) 이현궁(梨峴宮)에 관청을 마련한 이후 1799년(정조 23년)과 1801년(순조 1)에 증축되었다.⁵⁰⁾ 이때 증축된 대부분의 건물이 창고 용도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장용내영에 보관된 미곡과 군수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화성에서는 이미 장기적으로 물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행궁이 증축되는 시기에 장용외영의 미곡과 군수물자의 관리에 대비하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거나 창살을 마련한 창고용 건물을 마련한 것이다.

그 밖의 행정공간으로는 1789년 정리소 동편에 세워진 비장청으로 유수부의 비장(裨將)들이 사용하였다. 1796년 비장청의 동편에 문서의 기록 및 발급·수령을 담당하는 서리들이 사용하였던 서리청, 1789년 좌익문 밖 동북 담장 안쪽에 집사(執事)들이 사무를 보던 집사청이 자리하였다. 집사청은 궁궐의 액정서(掖庭署)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화성행궁의 집사청은 평소에는 행궁의 잡다한 사무를 담당하던 집사들이 이용하다가 원행기간이나 작헌례를 올릴 때에는 임금을 보좌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남북군영행각은 궁궐이나 관아에 지어진 행랑과 같은 형식으로 화성행궁 정문인 신평루의 좌우에 지어져 행궁의 대문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1789년 처음으로 신평루 좌우에 지어진 후 1794년 행각을 추가로 지었다. 이곳은 장용외영이 설치되기 전에는 장령(將領)들의 처소로 수원 지방군들의 숙직장소였다. 당시 우열은 신평루 왼쪽의 북영, 좌열은 신평루 오른쪽의 남영에 각각 100명씩 주둔하였다. 이후 1789년(정조 23)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좌우열을 없애고 1,2,3번을 정하여 매년 각 100명씩을 양쪽 군영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일대는 정문을 2층 누각으로 지어 위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문 좌우에 최고의 군영인 장용외영의 군인들을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향후 상왕 정조와 신료 및 장용외영 군대와 백성들 모두가 화성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의 제반시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맺음말

정조대 건립된 화성행궁은 정조가 추구했던 화합정치의 상징적 의미가 녹아있는 곳이었다. 현릉원과 행궁을 수호하기 위해 화성이 건설되고,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화성 신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화성 신도시의 중심 시설인 화성행궁이 건립된 것이다.

우선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은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 행궁을 증축하던 시기, 행궁에 장용외영이 설치되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789년 현릉원이 조성되면서 이전된 수원 신읍치에는 새로운 관아가 들어섰다. 이듬해까지 약 340여 칸의 건물이 완성되고 각 건물에는 어필로 쓴 현판이 걸려져 행궁의 위상은 물론 왕실의 권위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매년 정조의 현릉원 원행이 이루어지고, 유수부 승격 이후 화성이 건설되면서 화성

살창이란 창울거미를 짜고 울거미의 아래위 가로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살대를 꽂아 만든 창이다. 살창은 살대 사이로 빛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채광창보다는 환기창으로 만들어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다. 보통 부엌의 부뚜막 위나 저장 공간인 곳간·광에 설치하여 부엌의 연기나 습기를 밖으로 배출시켰다. 동시에 공기를 환기시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물자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용이하였다.

50) 이방섭, 앞의 논문, 71쪽, 2010.

51) 정정남, 「장용외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藏書閣』 21, 59~61쪽, 2009.

은 대도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795년에는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당시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을묘원행 기간 동안 임금, 신료와 백성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이상이 실현된 뜻 깊은 공간이었다. 이후에도 낙남헌에서는 문무과 별시, 화성 성역 이후 낙성연과 호계 행사가 치러지면서 정조가 꿈꾸던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정조대 최고 군영인 장용외영이 화성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권 강화를 위해 창설되었던 장용영은 정조 후기에 이르러 화성부에 장용외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군대가 직접 행궁 내에 주둔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화성행궁에 장용외영의 군병들이 직접 주둔하면서 행궁을 수호하였다는 것은 화성행궁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행궁의 주요 건물과 그 주변 공간들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정조대 원행 시는 물론 평상시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주요 건물의 기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을묘년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과거 시험이 시행되고, 수원부에 하달되는 각종 문서가 게시되는 등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다. 유수의 거처였던 유여택은 원행 때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되며 대신들과 접견장소로 이용되었다. 혜경궁 회갑연에 맞추어 새롭게 지어진 장락당은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는데 회갑연에서 혜경궁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봉수당과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다. 장락당의 정면에 지어진 2층 누각의 경통관은 대문구실을 하였으며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내당인 복내당이 만들어져 원행시 임금의 처소로 이용되었다.

이동식 담장이 설치된 낙남헌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계의식 등이 펼쳐졌다. 낙남헌의 앞마당과 이어지는 득증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미로한정은 화성행궁이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건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성대한 행사가 펼쳐짐으로써 역사적 공간으로서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부 및 인근지역의 사민과 기민들에게 진휼행사가 베풀어졌다. 외정리소에서는 잦은 원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신평루 좌우에 배치된 장용외영에는 친군위가 머물며 행궁의 대문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정조대 건립된 화성행궁은 정조가 추구하던 협력과 소통의 정치가 이루어진 상징적 시설이었다. 특히 낙남헌의 열린 마당은 임금과 신료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아울러 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정조의 갑자년 구상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계, 배치되었고 평소 화성유수의 관아로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의 총체적인 문화적 역량이 결집되어 탄생되었지만 애석하게도 그 가치는 현대까지 이어져오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행궁의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화성행궁은 주요 건물의 실제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이유로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제 정조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고 행궁 주요 건물들의 실제 기능을 파악한다면 향후 화성행궁의 생활과 문화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수원시, 『원행을묘정리의궤(역주)』, 수원시, 19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宮闕志』, 2000.

경기문화재단, 『(국역증보)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5.

수원시, 『장용영고사(역주)』 수원시, 2005.

수원시 화성사업소, 『(국역)수원하지초록-水原旨令謄錄』, 수원시, 2007.

수원시, 『(국역)화성중기-華城重記』 수원시, 2008.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22, 일지사, 201~204쪽, 1996.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23, 일지사, 1997

김문식, 「조선 후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학인」, 『경기논단』 6, 경기개발연구원, 1997

유봉학·정해득, 「화성 관련 유적」,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건축공학과 석사논문, 2001.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柳承宙, 「南漢山城의 行宮·客館·寺刹建立考」,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003,

경기문화재단, 「화성행궁의 건축」,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정정남, 「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藏書閣』 21, 2009,

이방섭, 「정조의 장용영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화성능행도 병풍>, 조선 18세기 말, 비단채색, 각 폭 149.8×64.5 cm - 고궁박물관

* 국문초록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배경과 기능

화성행궁은 1789년 현릉원이 조성되고 수원 읍치를 이전하는 시기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까지 행궁의 건물들이 완성되고 각 건물에는 정조 어필의 현판이 걸리면서 행궁의 위상을 높였다. 이후 수원은 유수부로 승격되고, 화성이 건설되면서 신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혜경궁의 회갑연에 맞추어 화성행궁도 대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때 새롭게 지어진 낙남헌 앞마당에는 이동식 담장이 설치되어 형편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넓은 낙남헌 앞마당에서는 임금과 신료 및 백성들이 모두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졌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조대 최고의 군영인 장용외영은 화성행궁의 대문인 신평루 좌우에 배치되어 행궁을 직접 수호하였다.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혜경궁의 회갑연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간으로 평소에는 수원부의 동헌으로 기능하였다. 행궁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활공간은 평소 유수의 거처이지만 원행 때는 임금의 임시 처소로 사용된 유여택, 내당인 복내당, 혜경궁의 침전으로 사용된 장락당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이동식 담장이 설치된 독특한 구조의 낙남헌은 행사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곳에서는 회갑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양로연과 화성 낙성연, 문무과 별시, 호례의식 등이 펼쳐졌다. 낙남헌의 넓은 앞마당은 행사공간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그 옆에 자리한 득중정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낙남헌과 함께 불꽃놀이의 무대가 되었으며, 노래당과 미로한정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혜경궁의 회갑을 기념하는 진흙행사가 베풀어졌다. 신평루 주변 공간은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였다. 행궁을 호위하기 위해 친군위들이 숙직하던 남북군영행각, 잣은 원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외정리소, 행궁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비장청·서리청·집사청도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화성행궁은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정조의 화합정치가 실현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 주제어

- 화성행궁, 정조대 화합정치, 봉수당, 낙남헌, 신평루, 장용외영.

<Arrangement and Functions of Important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t Jeongjo Dynasty>

Kim, Seon-Hee

Construction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began in 1789, when Hyeonyungwon tomb was built and the location of Suwon-*Eup* office was moved. Buildings of Haenggung Palace were completed in the following year and the signboards with King Jeongjo's calligraphy which got hung on each of the buildings, gave prestige to Haenggung Palace. After that, Suwon was promoted to the status of a *yusu-bu* and, with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foundation for a new town was put into place. Especially, Hwaseong Haenggung Palace underwent a large-scale expansion with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ceremony in mind. At that time, movable walls were installed in the front yard of newly-built Nangnamheon building and were made to open and close according to the situations. In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uilding, various events in which the king, court officials and commoners participated were held. This was a realization of political ideals of King Jeongjo who intended to interact with commoners directly. Also, Jangyong-oeyeong, the most powerful military unit at the time of King Jeongjo, was positioned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Sinpungnu gate, the main gate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and directly protected the Haenggung Palace.

Main buildings of Hwaseong Haenggung Palace were divided into three zones. First, Bongsudang hall, the royal audience hall of Hae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ceremony was grandly held and functioned as government office of Suwon-*Bu* in ordinary times. Living quarters, located deep inside Haenggung Palace, consisted of Yuyeotaek building which was official residence of Yusu in ordinary times but was used as temporary residence of the king during his stays, Bongnaedang building which was women's quarters, Jangnakdang building which was used as Lady Hyegyeong's bed chamber, etc. Second, Nangnamheon building, a distinct structure installed with movable walls, was used as a space for events. There, events such as grand parties to celebrate 60th birthdays for the elderly, ceremony to celebrate completion of Hwaseong Palace, special national exams to select court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and Ho-gwe ceremony (treating soldiers with food and drinks) were held. The large front yard of Nangnamheon building was a space for events, a stage of unity and communication where the ruling class and commoners became one. Located right next, Deukjungjeong pavilion was a stage not only for archery but, along with Nangnamheon building, for fireworks, And Noraedang building and Mirohanjeong bower were used as rest areas. Third, at the Sinpungnu gate, the main gate of Haenggung Palace, rice and porridge were distributed to the poor in celebration of Lady Hyegyeong's 60th birthday. Spaces around Sinpungnu gate were used to conduct military and administrative affairs. They included North and South Forces Yeonghaenggak buildings used by night-duty royal guards to protect Haenggung Palace,

Ojeongniso building housing a division in charge of the king's frequent long stays there, and Bijangcheong, Seoricheong and Jipsacheong offices in charge of miscellaneous matters of Haenggung Palace.

Hwaseong Haenggung Palace was a symbolic space in which King Jeongjo's policy of unity to strengthen the powers of king through a rule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was realized.

* Key-word

Hwaseong Haenggung, King Jeongjo's policy of unity, Bongsudang, Nangnamheon, Sinpungnu, Jangyong-oeyeong

정조대 화성행궁의 건립 배경과 기능 토론문

이달호

1. 화성행궁의 건립배경의 시기구분 문제

- 1) 수원읍치 이전기
- 2) 행궁증축기
- 3) 장용외영 설치기

3시기 구분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 : 왜냐하면 장용외영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대부분 장용외영이 설치되는 1793년이 아니라 1794년 행궁 증축기에 건설됨. 따라서 장용외영 설치기를

2) 행궁 증축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2. 화성행궁의 기능의 공간 구분 문제

정무, 생활, 휴식, 행정, 군사공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

1) 봉수당과 생활공간

생활공간이라면 일상적인 공무와 정무생활과 구별되는 침소 등이 아닐까 봉수당과 유여택이 생활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

2) 낙남헌과 행사공간

미로한정은 휴식공간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곳으로 사료됨

3) 신평루와 행정·군사공간

신평루를 행정·군사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

화성행궁의 훼손과 식민지 통치기구의 확장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1. 머리말
2. 식민통치기구의 설치과정과 수원부 관아
 - 1) 일본수비대의 貳衛와 中營의 점거
 - 2) 수원경찰서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파괴
 - 3) 수원헌병대의 설치
3. 의료기관의 설치와 화성행궁의 훼손
 - 1) 수원자혜위원의 설치와 화령전
 - 2) 의료기관 확장에 따른 행궁의 훼손
- 결론

1. 머리말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회(추진위원장 김동휘)가 구성되고 수원의료원이 정자동으로 신축이전 되면서 1996년 7월 19일부터 화성행궁 중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지 90년만의 일이다. 일제에 의해 훼손된 그것을 100년 만에 되돌려놓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이 시대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1906년부터 화성행궁의 신평루 옆 북군영을 헐고 수원경찰서가 들어서고 1910년 남군영을 헐어 헌병분전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화성행궁의 훼손은 1911년 자혜위원을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향후 벽돌조의 건축물들이 행궁의 중심전각들을 훼손하고 높다랗게 들어서면서 식민지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거대한 물리력과 자본 앞에 망연자실 농락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근대는 자주적으로 구성한 그것이 아니었다. 수원지역의 근대사를 담은 대하소설 『먼동』의 작가 홍성원이 일컬었듯이 이 시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다. 동시에 수원 출신의 시인 박팔양이 일컬었듯이 ‘황홀한 근대의 무지개’를 쫓아 기존의 질서와 편견을 탈출한 부류들은 새로운 세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대는 민중과 민족을 발견한 각성된 이들에게는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였지만, 무언가를 쫓을 수 있는 근대의 황홀함에 달떠 친일과 치부를 향해 질주할 수 있었던 욕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다만 열심히 벌어들여야 하는 생존과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갈망으로 부유하는 존재들이었다. 그 틈새를 일제는 경찰과 군대라는 강력한 물리력과 의료시설이라는 근대적 기제를 통해 발전된 제국 일본과 후진적인 조선을 각인시키며 조선왕실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물 수 있었던 것이었다.

화성행궁은 국왕이 용건릉을 참배하러 올 때 머물던 이궁이자 행궁이었고, 평상시 수원유수가 기거하던 곳이다. 수원유수부는 이러한 화성행궁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원의 행정을 담당했던 수원 判官이 집무하는 貳衛 및 군사적 업무를 총괄하던 경기中軍이 집무하는 中營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수원부 관아의 점유와 활용은 화성행궁을 비롯하여 이아 및 중영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관아 건물은 아니지만 정조의 어진이 봉안된 화령전은 가장 신성한 공간이자 조선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물이었다. 이들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일제에 의해 점유되고 활용되면서 원형을 잃은 채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로 전용되어갔다. 국망과 새로운 지배자인 일본을 보여주는 식민통치적 기제는 기존의 황실의 상징성을 훼손하면서 일본수비대의 주둔과 경찰서의 설치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기구의 배치라 할 수 있다.¹⁾

기존의 관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식민통치를 위한 토대로 활용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원의 화성행궁과 정조의 어진을 봉안했었던 화령전 등이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던 조선시대 가장 큰 행궁과 수원 관아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식민통치기구의 설치와 화성유수부 관아

정조 이래 조선의 모든 국왕이 찾았던 수원은 조선시대 최대의 화성행궁이 자리잡고 있는 자랑스런 도시였다. 정조 이래 사도세자의 혈족으로 왕위를 계승한 조선왕실은 사도세자(장조)가 묻힌 용릉과 정조의 건릉을 비롯하여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화령전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황실의 권위와 역사적 자부심에 흠집을 내며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던 사례는 평양의 풍경궁(豐慶宮)이 있다.

구국과 황권강화를 목적으로 지어진 평양의 풍경궁은 1902년 건립된 대한제국의 이궁(離宮)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군용지로 수용되어 군기고와 숙소로 사용되었던 풍경궁은 1907년 8월 6일 풍경궁을 호위하던 군대가 해산되었고, 풍경궁의 태극문 밖 좌우 행랑에는 일본 군대가 병기·탄약·피복 등을 쌓아두고 지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즉 1907년 8월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으로 관제가 폐지되고 사실상 행궁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후 풍경궁은 1914년 평양자혜의원으로 활용되었다.²⁾ 평양 자혜의원은 1906년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同仁會議院을 자혜의원으로 인수함으로써 신속하게 개원할 수 있었다. 실제 평양 풍경궁이 평양자혜의원의 병동으로 활용된 것은 1914년부터이다. 이는 1911년 화성행궁 봉수당을 수원자혜의원으로 활용한 사례보다 뒤의 일이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지방 관아를 자혜의원으로 사용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³⁾

화성행궁의 일부 건물을 훼손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화성행궁의 낙남헌을 개조하여 군청과 토목관구 및 세무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10년 국망 이듬해인 1911년 당시 수원의 관공서로는 水原郡衙, 권업모범장, 농상공부 임업사무소 水原苗圃, 수원경찰서, 水原區裁判所, 憲兵分隊, 수원우편국 등을 꼽고 있다.⁴⁾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자혜의원을 손꼽지 않았지만 화성행궁을 허물고 들어선 건물로는 수원경찰서와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었다. 그 당시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미 1,000명이

1) 이동근, 「일제강점기 화성 성내외의 관공서와 경제기구」,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2) 박성진, 「평양의 황건문이 남산으로 내려온 까닭은?」; 김윤정, 「대한제국, 평양에 황궁을 세웠다」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효형출판, 2009.

3)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路線案内』, 1911, 79쪽.

넘어섰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제를 위하여 일본인 학교인 수원심상소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정도였다. 1911년 당시 일본의 종교적 이식 또한 빠르게 진행되어 本願寺布敎所와 淨土宗 水原寺 및 高野山출장소를 운영하였다. 관립 자혜의원과 별도로 山口醫院, 川口醫院이 운영되었다. 동시에 일본인들의 왕래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수원역 앞에 山本여관(객실 5칸)과 시내에 八達館(객실 10칸), 山陽여관(객실 10칸)이 있었고, 굴지의 대지주로 등장한 東山농장, 國武농장, 尙老농장, 川本농장이 수원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한성은행 수원지점과 한성手形組合, 동양척식주식회사 수원출장소, 금융조합 등이 설립되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일제는 식민통치를 위한 기간시설 가운데 하나인 통신을 장악하여 시내에 수원우편국을 두었고 수원역 앞으로 일본인들을 위한 수원역우편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물리력으로 군대와 경찰을 수원에 주둔시키는 것이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

1914년 『발전하는 수원』에서 관아로 지칭된 것으로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경기도 자혜의원, 수원수비대, 수원헌병분대,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경기도 수원苗圃, 수원우편국, 관립농림학교, 수원정거장前우편국, 오산우편소, 안녕우편소, 오산헌병파견소, 원잠중제조소, 수원恩賜授産場을 꼽고 있다.

1915년 수원의 관공서 및 기타시설로 군청·守備隊·권업모범장·농림학교·恩賜授産場·蠶種製造所·지방법원지청·警察署·憲兵隊·우편국·자혜병원·금융조합·학교조합·동양척식회사출장소·전기회사 등을 들고 있다.⁵⁾

이들 관공서들은 화성행궁에 군청과 경찰서 및 헌병분대와 자혜의원이 들어섰고, 대한제국의 진위대가 주둔했던 중영에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섰음을 뜻한다. 또한 판관이 근무하는 貳衙에 수비대 사무실과 재판소가 들어섰던 것이다.

1) 貳衙와 中營의 점거와 파괴 - 수비대·법원·군청의 설치

임진왜란 이후 근대시기 일본군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강화도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880년 일본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을 때 무관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본군의 주둔 형태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가 1882년 7월 16일 일본군 2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임오군란으로 맺은 제물포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측에 대해 일본공사관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적하면서 ‘공사관 수비대’ 명목으로 일본군 병력 일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이후 1개 대대로 늘었다가 다시 1883년 8월에 1개 중대로 축소된 일본군은 이듬해인 1884년의 갑신정변에 관여하게 되었다.

1885년 4월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천진조약에 따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였는 바, 1894년 청일전쟁까지 일본과 청국의 군대는 조선에 주둔하지 않았다. 이 10년간의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세력균형 기간이 조선에게는 개혁과 부국강병의 중대한 시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이들의 세력균형은 기울게 된다. 일본군 ‘수비대’가 이를 통해 부활하게 되었는데, ①일본인 거류민의 보호, ②병참경비, ③군용전선선의 수비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성京城지구수비대·인천병참경비대·낙동전선경

5) 朝鮮總督府 鐵道國, 『朝鮮鐵道旅行案内』, 斯道館, 1915, 38쪽.

비대(洛東電線警備隊)가 설치되었다. 이들 수비대는 1896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고 경성과 그 부근에 군사경찰제 시행을 포고하면서 서울의 치안권까지 장악하였다.

주차군은 군용시설의 보호, 점령지 치안확보를 명목으로 한국의 각 지역과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군정을 선포하고 군율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물론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주권국가의 주권침해였고, 일본정부와 주차군에 의한 실질적인 한국 식민지화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1894년 갑오개혁 이래 조선의 陸軍各部局 편제는 지속적인 개편이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육군편제에 따르면 수원은 鎭衛步兵 제2연대 제1대대(수원 200, 안성 50, 북한산 50)가 주둔하는 곳이었다. 수원에는 200명의 보병이 주둔하고 있었던 셈이다.⁶⁾

1905년 4월 한국정부의 군대의 개편 당시 수원은 鎭衛 第1大隊 주둔지였다. 지방의 진위대는 7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원을 비롯하여 청주·대구·광주·원주·해주·황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진위 제8대대는 함경도 북청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일본군이 이곳에 다수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즉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부가 있었던 주요 도시에 진위대가 배치되었던 셈이다. 각 진위대의 대대는 4개 中隊로 구성되었고, 중대는 장교 이하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원의 진위 제1대대의 규모는 604명에 달하고 있었던 셈이다.⁷⁾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조치로 지방의 진위대는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해산을 맞이하였다. 侍衛武官府, 侍從武官府, 東宮무관부, 親王府 무관, 무관학교, 近衛보병대대(644명) 등 황실을 위한 최소 병력 745명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8,426명에 이르는 군인을 해산하였던 것이다.

지방의 진위대가 해산한 그 지점을 일본군 수비대가 장악하여 들어왔던 셈이다.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는 외교권 박탈을 넘어 군사적 강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896년 의병의 봉기에 따라 일제는 각 지방에 兵站部를 설치되었을 때 강원도와 경상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때 경기도는 340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수원은 50명이었다.⁸⁾ 수원에 언제 일본군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었을까?

1905년 3월 12일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각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일본군사령부에서 헌병과 수비대의 배치를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수원·공주·강경·군산 전주·목포·광주·진주·청주·대구·마산 등 11개 지역에도 수비대 혹은 헌병대를 주둔케 하고 이들 지역 간에 군사통신을 신속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군용 전신·전화 등 통신기관을 설치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고 내용이었다.⁹⁾

따라서 수원에 수비대와 헌병대가 배치된 것은 1905년 3월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즉 러일전쟁 중 1905년 3월 10일 일본군이 만주 봉천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면서 이튿날 일본헌병대가 궁성호위를 담당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제 군사경찰의 통제와 감시를

6)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967, 326쪽.

7) 金正明, 위의 책, 333~334쪽.

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施政一斑 등 보고], 報告 제12호, 1896. 9. 30.

경기도(340명): 광주(60), 水原(50), 楊根(20), 여주(70), 포천(70), 안성(70)

강원도(570명): 철원(80), 춘천(100), 京城(20), 원주(130), 伊川(140), 강릉(100)

충청도(350명): 충주(100), 제천(100), 청주 地方隊(약간 명), 永同(50), 洪州(100)

경상도(800명): 상주(100), 경주(100), 안동(100), 盈德(100), 대구·固城지방(400)

9) 『舊韓國外交文書』 7, 日案8535, 광무 9년 3월 24일;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249쪽.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던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수원에 일본군이 배치된 것은 1907년 후반으로 추정된다. 즉 1907년 12월 일본군 수비대 배치표에 따르면 수원에는 西部守備區 보병 제47연대 제3대대 본부가 위치하였다. 1907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처음 상시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05년 10월 현재 한국수비대 管區구분 및 배치표에 따르면 경성지방(경성·김화·춘천·인천·충주·대구·부산·전주)과 개성지방(개성·해주)은 제13사단 보병 제51연대 병력이 경성과 개성에 사단사령부와 중대 병력이 주둔하였고, 기타 지역은 중대 단위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수원에는 주둔병력이 없었다. 또한 1907년 4월 1일 개편된 일본군 수비대 제13사단의 관할 구역 내에 있었던 수원에도 일본군은 주둔하지 않았다. 남부수비관구에 해당하는 보병 제13사단 사령부는 경성에 주둔하면서 보병 제6중대(탄현·김화·포천), 제2중대 제1소대(춘천), 제7중대 1소대(인천), 제9중대 1소대(충주), 제4중대(전주·대전), 제11중대(대구·부산)가 배치되었지만 수원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1907년 12월 시점에 수원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보병 제47연대로 바뀌면서 제3대대 본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군대해산 이후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 수비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 주둔지는 鎭城·회령, 북청·함흥, 원산, 강릉, 京城, 개성, 평양, 대전·조치원, 대구·전주 등이었다. 수원은 충주·이천, 의주, 상주, 광주·부산 등과 함께 그 아래 급수의 大隊 本部가 위치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908년 5월이 되면 수원은 함흥·평양, 京城, 수원·안동·상주·대전, 경주·대구·진주·전주 등과 더불어 일본군 수비대의 주력주둔지로 격상되었다. 즉 수원은 충주수비구 관내 보병 제23연대 본부가 주둔하는 곳이 됨으로써 경기도남부와 충청도 및 강원도 영서지방까지 총괄하는 군대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성환·공주·조치원·이천·음성·충주·제천·영월·삼척·강릉에 각각 보병 1중대씩 배치되었고, 홍주·예산·청주·양지·장호원·여주·괴산·단양·평창·진부·울진에 각각 보병 1소대가 배치되었으며, 홍산·전의·진위·과천·부평·청안·광혜원·죽산·안성·광주·수안보·목계·청풍·평동·영춘·주천·정선·황지·임계 등지에 보병 1분대씩 배치하였다. 이는 결국 이 지역의 격렬해지는 의병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이후 의병전쟁으로 힘들었던 일본군의 병력을 교대해주면서 일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1908년 11월 시점에 전국의 관찰부에 해당하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하여 함경도 경성·함흥, 평안도 평양, 전라도 전주·광주, 경상도 대구·진주, 강원도 춘천 등 9곳에는 일본수비대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공주·해주의주에는 1개 중대가 주둔하였고, 청주에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¹⁰⁾ 이때 수원에는 보병 제27연대 본부 및 제3·5중대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수원의 일본군 수비대는 보병 제13연대 제2대대의 보병 중대 병력만이 주둔하는 곳으로 그 군사적 위상이 격하되었다. 수원을 대신하여 김화와 충주가 주력부대의 주둔지가 되면서 의병전쟁에 영향을 덜 받는 수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10년 4월 용산을 주둔지로 하는 보병 제65연대와 교대하였을 때에도 수원은 京城·포천·김화·춘천·원주와 더불어 중대 병력이 주둔하는 곳이었다.

중대 병력 규모의 일본군수비대가 수원의 어디에 주둔하였는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1916년 『朝鮮師團創設記念號- 朝鮮寫眞畫報特別號』 화보집에는 中營의 솜을대문 오른쪽으로 세로로 된 ‘水原守備隊’ 팻말이 걸려 있다. 수비대장 보병대위 樗木二之(제79연대 제1대대 제1중대장)와 그 예하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¹¹⁾ 또한 1917년 제작된 수원 지도에도 수

10) 金正明, 『朝鮮駐劄軍歷史』, 巖南堂書店, 1967, 112~116쪽.

11) 朝鮮寫眞通信社, 『朝鮮師團創設記念號- 朝鮮寫眞畫報特別號』, 1916, 78쪽.

원수비대는 옛 中營 자리에 위치하였고, 수비대 사무실은 이아(貳衙) 자리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주요 병영으로 중영이 활용되었고 수비대의 행정사무는 이아에서 보았다는 것이 된다. 1917년 수원수비대와 헌병분대가 해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19년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한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본군이 밀물 듯이 들어와 민간인 학살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다시 수원에 주둔하였고, 군비축소 등의 문제로 1923년 3월 수원에서 일본군이 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²⁾ 일본군수비대가 철수하고 난 뒤 그들이 주둔하였던 중영 자리는 일본인 사찰이 운영하는 高野山 國民學堂이 들어섰다. 그러나 고야산 국민학당은 1935년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8년 이 자리에 화성행궁 낙남헌을 사용하던 水原郡廳이 새롭게 들어섰다. 부지 1,699평에 군청사는 연화조 일부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 본관은 건평 173평 규모였고 회의실과 부속 건물이 별도로 지어졌는데 170평 규모였다.¹³⁾ 따라서 중영의 한옥 건물이 1938년 거의 대부분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영은 일본군수비대→ 고야산 국민학당→ 수원군청으로 변모되었다가 해방 후 화성군청→ 후생내과 등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수원수비대 사무실이 위치했던 이아 자리에 京城地方法院 水原支廳이 벽돌조 건물로 신축한 것은 1920년 4월의 일이다. 통감부 시절인 1909년 11월 1일부터 수원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아 자리로 추정된다.

2) 수원경찰서의 설치와 화성행궁 파괴

일제는 1908년 7월 20일 지방관제를 고쳐 일본인 경시(警視)를 각 도 경찰부장(警察部長)에 임명하고, 각 경찰분서를 경찰서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 관청인 군아(郡衙) 소재지에는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를 두었다.¹⁴⁾ 이에 경찰 인력 3~8명으로 1개 군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경찰서는 1908년 7월 2일부터 警部 정필화(鄭弼和)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였고,¹⁵⁾ 7월 23일 京畿警察部長 겸 수원경찰서장으로 警視 이이다 아키라(飯田章)가 임명되었다.¹⁶⁾ 1909년 5월 19일 警部 모리와끼(森脇英士命)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京畿警察部 兼務하였다.¹⁷⁾ 따라서 수원경찰서의 설치는 1908년 7월 이전의 일이다. 한편 일제 통감부 『官報』에 1909년 4월 19일자 ‘水原警察署廳舍 및 警部官舍 신축공사’ 청부 입찰 광고를 실고 있다.¹⁸⁾ 그러나 다시 6월 28일 ‘수원경찰서 巡查宿舍 신축공사’ 입찰 광고가 실리고 있다.¹⁹⁾ 이는 1909년 6월 28일 이전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는 업체에 의해 낙찰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경찰서 순사 관사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다시 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09년 수원경찰서 신축공사는 화성행궁의 북군영(北軍營)을

將校下土로 松本軍曹, 內海특무조장, 高田중위, 山根중위, 花岡중위, 長谷川조장, 梅本伍長, 山田군조, 谷本오장, 山田군조, 吉川군조, 新井군조, 吹拔군조 등이다.

12) ‘守備隊를 解散’, 『朝鮮日報』 1923. 3. 24.

13) 이동근, 앞의 글, 218쪽.

14) ‘勅令’, 『官報』 第四千百卅三號, 隆熙二年七月廿三日

15) ‘敍任及辭令’, 『官報』 第四千百四十七號, 1908년(응희2), 8월 8일

16) ‘敍任及辭令’, 『官報』 第四千百卅六號, 1908년 (응희2). 7. 27.

17) 『官報』 第四千三百八十四號, 隆熙三年五月廿四日

18) ‘廣告’, 『官報』 第四千三百五十七號, 隆熙三年四月廿二日

19) 『官報』 第四千四百十四號,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헐어내고 그 자리에 신축한 것이라 하겠다.

당시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 공사 입찰 광고와 함께 실렸던 입찰 광고는 龍岩浦 경찰서 청사 수선 및 警部官舍 신축공사, 馬山區裁判所 청사 수선공사, 咸興財務署 청사 신축공사, 馬山 警部 관사 신축공사, 元山警部 官舍 신축공사, 永興警察署 청사 및 警部관사 신축공사 등이 었다. 이들은 1906년 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신축 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원의 경우 수원경찰서 이외에 ‘水原區裁判所 청사 修繕 및 증축공사’ 광고가 보이는데, 이 는 이미 수원재판소 청사가 1909년 6월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들 광고는 모두 건축소(建築所)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바, 당시 建築所長官은 아라이(荒井賢太郎)였다.

건축소는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55호 ‘建築所 官制’ 반포에 의해 만들어진 탁지부 내 조 직이다. 통감부 체제 아래 각종 건축물들에 대한 시공을 담당한 것이 건축소였다. 즉 러일 전쟁(1904. 2~1905. 9)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소위 을사보호조약(1905. 11. 17)이라 일컫는 늑약을 맺어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법적인 형식은 외교권의 박탈이지만 통감부는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함으로써 사실상의 식민통치와 다름없이 되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모든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官衙 건 물의 新營을 계획하였다. 이에 1906년 2월 이미 서울 남산의 요지에 통감부 청사를 건축하 여 다음 해에 완성하였다. 더욱이 1907년에 체결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에 따라 일본인 을 한국의 관리로 임용하게 되어 소위 차관(次官)정치가 시작되었다. 관청 건축을 신식건축 으로 대폭 교체키로 한 그들의 방침에 따라 한국 탁지부 산하에 ‘건축소(建築所)’라는 기구 를 두고 일본인 건축 기술자를 다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탁지부 건축소가 생기면서 건축 자재의 공급(官給)을 시도하여 건축소 부설 벽돌제작소가 생겼다. 이에 1907년 독일제 기계 를 도입하여 마포에 건축소 부설 벽돌공장을 만들어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 조 때 화성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와벽소를 설치하여 벽돌을 생산한 적은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벽돌은 탁지부 건축소의 여러 공사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 민간공사에도 제품을 공급하였다.

1907년부터 한일합방까지 탁지부 건축소의 이름으로 신축된 건물은 수십 채에 이른다. 이 3~4년 동안 명목상 대한제국의 관청건물과 공공건물들이 새롭게 신축되면서 서울의 풍경은 기존의 궁궐과 한옥이라는 평면적 도시공간에 벽돌로 된 근대적 건축물들이 높다랗게 세워 지면서 식민지적 지배와 서양식 문물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갔다. 이에 대한 의원 본관, 한성재판소, 내부(內部)를 비롯한 농상공부와 학부 청사를 비롯하여 경성감옥 등 을 새롭게 건축하였다. 서구 건축양식을 모방한 일본인들의 건축양식은 한국의 전통건축을 크게 변모시켰다. 또한 각 지방의 재판소와 경찰서 및 재무서(財務署) 청사를 비롯하여 각 항구의 세관(稅關) 건물 등이 건축소 주관으로 세워졌다. 수원경찰서 역시 이러한 틀에서 신축된 것으로 일본식 목조 건축물이었다.

1910년 8월 26일 경기경무부 관할 내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안성·인천·김포·강화·교 하·개성경찰서 등 7개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당시 경찰부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 14개 도 경무부와 경 무총부(警務總部)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경기도 경무부 관할로는 수원경찰서를 비롯하여 영등포·안성·인천·김포·강화·교하·개성경 찰서 등 8개 경찰서가 배치되었다. 당시 수원경찰서는 인천경찰서와 개성경찰서에 警視가 배치된 것에 비해 격이 낮은 警部가 있는 셈인데, 이는 수원경찰서에서 경기경무부 일을 겸

무한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원경찰서는 경기경무부 경시 2인(한인1, 일인1)과 일본인 경부 2인을 비롯하여 수원경찰서 경부 2명(일인 1, 한인 1), 일본인 통역생 1명 등 3명을 포함하여 7명이 있었던 셈이다.

<표 1> 전국 경찰 직원 배치표(1910년 8월 26일 제정)¹⁾

區別 部署別	警視		通譯官	技師	警察醫	屬	警部		技手	通譯生	
	한인	일인					한인	일인		한인	일인
京畿警務部	1	1	-	-	-	-	-	2	-	-	-
水原警察署	-	-	-	-	-	-	1	1	-	-	1
永登浦警察署	-	-	-	-	1	-	1	1	-	1	-
安城警察署	-	-	-	-	1	-	-	1	-	1	-
仁川警察署	-	1	-	-	1	-	1	2	-	-	1
金浦警察署	-	-	-	-	1	-	-	1	-	1	1
江華警察署	-	-	-	-	1	-	1	1	-	-	-
交河警察署	-	-	-	-	1	-	-	1	-	1	-
開城警察署	-	1	-	-	-	-	-	1	-	1	-
경기도 소계	1	3	-	-	6	-	4	11	-	5	3
전국 합계	16	36	3	1	68	8	101	167	2	58	21

경기경무부 소속이던 수원경찰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통합된 수원군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에서도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노구찌 순사부장이 서신면 사강장에서 만세시위를 하던 민중들에게 처단되기도 하였다. 수원경찰서는 1921년부터는 경기도 경찰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통치기구로 기능하였다.

3) 수원 헌병대의 화성행궁 설치

1893년 12월 서울에 주차헌병대를 편성하여 이를 당시 주차일본군사령부에 부속하였고 청일전쟁이 개시됨에 따라 1894년 2월 한일협약을 체결한 결과 다시 일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의 주권과 한국경찰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동시에 함경도에 대대적인 일본군을 주둔함으로써 함경도에 군정(軍政)을 실시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의 역할과 동시에 전신과 철도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에 헌병경찰을 배치하여 군사경찰 외에도 일반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역할까지 자행하며 간섭하였다. 1908년 6월 한국인 가운데 헌병보조원 4,000명을 모집하여 일본 헌병 아래 배치하여 일반 경찰사무 및 민정경찰에 복무하게 하였다.

주차헌병대는 1905년 3월 18일 편성 개정됨에 따라 본부 이하 부산·원산·인천·의주·평양·안주·개성·경성·임영·전주·대구 등 11개 분대와 그 아래 분견소 56개가 설치되었다.²⁰⁾ 이후 수원에 헌병분대가 설치되는 것은 1905년 11월 24일로 수원 헌병분대 분대장은 후로쿠와(古森雄能夫) 소위였다. 이후 1906년 11월 13일 제14헌병대로 재편성된 한국주차헌병대는 서

20) 李升熙, 『韓國併合と日本憲兵隊』, 新泉社, 2008, 72쪽.

울에 본부를 두고 헌병분대를 京城·인천·수원·전주·대구·부산·개성·평양·안주·의주·함흥·鏡城의 12개소에 설치하고 그 아래 32개 헌병분전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²¹⁾ 이때 12개의 헌병분대 가운데 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열흘도 되지 않아 11월 22일 조직이 개정되었는 바, 한국주차헌병대는 제14헌병대로 개칭되어 축소되었다. 이에 헌병분대는 京城·평양·정주·부산·전주·함흥·鏡城 등 7개소로 축소되었고, 그 아래 분전소도 20개소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수원에 헌병분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병분전소가 20개로 축소되었을 때 함께 없어진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07년 10월 29일 한국주차 헌병대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성분대, 평양분대, 천안분대, 부산분대, 영산포분대, 함흥분대 등 6개 분대 아래 46개 분전소를 두고 있었을 때 수원헌병분전소는 없었다. 즉 경성분대에는 미동·필동·용산, 인천, 평산, 고양, 문산, 마전, 철원, 양주, 의정부, 고안, 양근, 강화도, 옹호도분전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성분대 관할 지역이었던 수원에 헌병분전소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1907년 군대해산 직후 수원은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원에 일본군 수비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2> 한국주차 헌병대 배치 상황¹⁾

연도	分隊	分遣所	派遣所	出張所	인원 (헌병보조원)	
1906. 12. 1	7	20			289	
1907. 10. 29	6	46			751	
1908. 7. 18	6	441	11		2,182	(4,100)
1909. 8. 10	6	442	23	4	2,219	(4,100)
1910. 7. 1	77	525	3		3,410	(4,122)

그러나 이듬해 1908년 1월 28일 재편된 일본 헌병대는 관구제(管區制)를 채택하면서 6개 관구로 나누고 전국적으로 분전소를 441개, 파전소 11개로 늘리면서 인원도 3배로 증원되는 대대적인 확충을 하고 있다. 이는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진 의병들의 항쟁에 대한 일제의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이에 헌병보조원 제도 실시에 따른 1908년 7월 18일 개편으로 수원은 경성분대 하에 제21관구를 두고 수원분전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월 29일 조직 개편이 이루어 질 때도 경성분대 아래 수원관구를 두고 수원분전소로 존치되었다. 헌병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1910년 7월 1일 편제개정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원분대가 설치되었다. 황성신문은 1910년 7월 10일 수원헌병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²²⁾

따라서 수원 헌병대는 1905년 11월 24일 수원 헌병분대가 설치되었다가 1906년 11월 22일 수원 헌병분대가 폐지되었고, 다시 1908년 7월 18일 경성분대 아래 수원헌병분전소로 축소되어 존치되었다가 1910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수원 헌병대본부 및 수원분대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이때 설치된 수원헌병대는 헌병분대로 볼 수 있다.²³⁾

1910년 7월 설치된 수원 헌병분대는 화성행궁 정문 신평루의 남쪽 행각과 남군영을 사용하

21) 李升熙, 위의 책, 77쪽.

22) ‘水原憲隊開設’, 「雜報」 『황성신문』 1910. 7. 10.

水原憲兵隊는 今日開設하야 明日부터 事務를 開始한다더라

23)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路線案内』, 1911, 79쪽.

게 되었다. 이로써 화성행궁 정문인 신평루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헌병대와 경찰서가 들어섬으로써 일제의 지방 통치의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의료기관의 확장과 화성행궁의 훼손

1) 수원자혜위원의 설치와 화령전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의료와 교육부문을 통하여 조선의 민중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일제에 의한 합방이 되기 이전에 대한제국은 1909년 12월 10일 청주와 전주 2곳에 자혜위원을 창설함을 시초로 1910년 1월 25일 함흥에 자혜위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1910년 6월 일본 통감은 한국정부에 자혜위원을 증설할 것을 촉구하여 1910년 7월 21일 칙령 제38호를 발효하여 자혜위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기존의 전주·청주·함흥의 자혜위원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8개 도시에 자혜위원이 증설되게 되었다. 즉 수원(水原)을 비롯하여 공주(公州)·광주(光州)·대구(大邱)·진주(晋州)·춘천(春川)·의주(義州)·경성(鏡城, 1920년 羅南으로 이전)이 그것이다.²⁴⁾ 이때 평양 및 대구의 동인의원(同仁醫院)이 도(道)에 이관, 자혜위원이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13개의 자혜위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고 이후 9월에 비로소 개원을 하게 되었다.²⁵⁾ 공식적으로 수원지역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는 미명 아래 전국의 주요 지역에 자혜위원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급하게 개원된 각지의 자혜위원은 약품과 의사들이 태부족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약재 및 위생재료는 서울과 함경도 나남(羅南)의 일본 육군부대 창고에 보관하던 것들이 보급되었고, 의사들 역시 일본 육군 군의(軍醫)들로 충당되면서 병원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병전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뒤에 소용없게 된 넘쳐나는 군용 의약품과 군의들을 용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었다는 시혜적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모와 의료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지 조선의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 일제가 수원에 자혜위원 자리로 첫 번째로 뽑았던 곳은 연무대, 즉 동장대였다. 그러나 읍내에서 거리가 멀고 난방시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장대는 온돌 시설이 없었고 군사지휘소로 개방된 건물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혜위원 자리로 선택된 곳은 화성행궁 옆의 화령전(華寧殿)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었지만 1908년 덕수궁 선원전으로 정조 어진을 이관하고 난 뒤 비어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1910년 9월 5일 수원 자혜위원이 화령전에서 개설되었다.²⁶⁾

화령전에 관립자혜위원을 개원하였을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민심이 반을 두려워해서인지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雲漢閣)에는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좌우의 부속건물을 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즉 화령전 정전의 오른쪽 어정(御井) 앞의 전사청(典祀廳)과 그 부속건물 및 좌측의 풍화당(風化堂) 등 3동을 병원 건물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풍화당

24) 『朝鮮道立醫院要覽』 1940, 2~4쪽.

25) 勅令 제357호, 朝鮮總督府 「地方官 官制」(1910. 9. 5)로 각도에 慈惠醫院을 附置케 하였고, 이후 칙령 제368호 조선총독부 「醫院官制」(1910. 9. 30)를 발표하였다.

26)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291~292쪽.

은 갑(甲)병실,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로 사용하고, 문칸의 부속건물은 을(乙)병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원통형의 우물이던 어정(御井)의 끊임없이 샘솟는 양질의 물은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었다.²⁷⁾

관립수원자혜의원이 개원될 당시 원장은 일본인 육군 군의 무라이(村井靜夫)와 같은 육군 군의 요시노(吉野麟至)와 조선인 의사 권태동(權泰東), 그리고 약제사 구구성장(溝口成章), 육군 간호장 이와다(岩田恒四郎), 간호부 야마구찌(山口도미) 등이었다. 권태동 선생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각종 의료기구와 자재가 서울과 함경도 나남의 육군부대에서 가져왔고, 의사들 역시 육군 군의들을 대거 활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화령전에 설치된 자혜의원의 규모는 서무과·약제과·진료과 및 숙직실의 건평은 전체 61평으로 갑병실 20평, 을병실 11평에 불과한 상황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는 좁지만 중정의 뜰은 매우 넓어서 여름에는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문제가 심각하여 병실로 사용하던 풍화당의 온돌 외의 마루에는 다다미를 깔고 난로를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시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갔다. 실상 화령전에 자혜의원을 개원한 것은 화성행궁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2) 의료기관 신축에 따른 행궁의 훼손

1910년 10월 화성행궁의 경기도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노천진료를 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이유로 화령전에 설치되었던 자혜의원을 화성행궁으로 옮기는 것을 실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찰부가 떠나감에 따라 일제는 화성행궁의 넓은 건물들을 주목하였던 셈이다. 기존의 화령전에 웅색하게 들어선 자혜의원을 드넓은 화성행궁으로 옮긴 것인데, 이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넓은 건물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수원의 중심적 행정기구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적 관아를 근대적 의료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멸망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화성행궁의 가장 중요한 정궁 역할을 하는 봉수당(奉壽堂)에 자혜의원을 설치함으로써 행궁 건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조선왕실의 권위와 그 표징이었던 화성행궁을 허무는 이중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실 및 관청 건물 대한 사용을 학교 또는 의료시설로 활용했던 일제의 고도의 술책은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발달한 일본의 근대적 신문명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선전이 가능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청사를 병원 기능에 맞게 다시금 수리 개축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 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령전의 정전 운한각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화성행궁의 정전이던 봉수당을 병원의 본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몰락을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좌익문과 봉수당 사이에 있었던 중문인 중앙문(中陽門)을 효율성을 병자하여 철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로써 화성의 심장이자 조선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화성행궁의 훼손은 어쩌면 마땅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경복궁이 철저히 훼손되어 조선총독부가 건립되는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7) 三木 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 『中外醫事新報』(1936. 5), 225쪽.

화성행궁의 본격적인 훼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신평루 양 옆의 북군영과 집사청의 일부는 경찰서로 사용되었고, 남군영과 서리청 역시 헌병분대와 그 숙사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이 화성행궁으로 이전하면서 좌익문 남쪽의 비장청과 회랑은 시료부(施療部)·진찰소, 외정리소는 간호부 기숙사 및 시료실(施療室), 유여택 북쪽 회랑은 약품창고, 유여택 남쪽 회랑은 전염병실이 되었다. 좌익문과 중앙문을 잇는 북쪽 회랑은 창고, 중앙문과 봉수당을 잇는 북쪽 회랑은 내과병실이었다. 유여택은 식당으로 활용되었고 북내당과 그 주변의 회랑은 남병실(南病室)이었고, 장락당에는 진찰실 및 수술실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으로 활용된 봉수당은 서무과·진료과·약제과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봉수당에서 득중정으로 이어지는 회랑은 북병실(北病室)로 활용되었고, 봉수당 뒤쪽 득중정과 이어지는 서회랑은 병리시험실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은 좌익문을 정문으로 하고 봉수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회랑을 양쪽으로 하는 구역 모두가 활용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신평루 양 옆의 경찰서와 헌병분대 그리고 낙남헌은 수원군청 서무과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화성행궁을 활용한 자혜의원의 규모와 내역은 전체 부지 면적 2,686평에 건물 면적 649평으로 서무과, 의무과, 진료실(보통부·시료부), 약제과, 약실, 연마작업실, 병실 37실(온돌실 25실, 다다미실 5실, 마루실 1실, 예비병실 6실)과 병상수 44명(일반병실 38명, 전염병실 6명) 예비병상수 10명의 규모였다. 또한 수술실, 병이시험실, 암실, 치과치료실, 시체실, 공용품 창고, 양품창고, 기계창고, 잡품창고, 장작 연탄창고, 취사장, 욕실 2, 소독 겸 건조실, 강당, 소사실, 탕비실, 숙직실 등이 있었다.

1911년 당시 수원 시내의 인구는 약 1만여 명을 넘고 있으며 일본인들도 3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주요한 기구나 건물로는 관립농림학교, 총독부모범농장, 우편국, 헌병대, 경찰서, 구(區)재판소, 자혜병원(慈惠醫院), 일본인 소학교 1개와 조선인 소학교 5개가 있었다. 일제의 중요한 통치기구 가운데 자혜의원은 헌병분대 및 경찰서같이 강제적 기구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자혜의원의 건물은 수술실로 사용하는 1동을 제외하고 모두 화성행궁의 주요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마다 건물 개수(改修)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도모하였다. 즉 시세에 발맞추어 건축 총공사비 7만8천여 원을 들여 1923년 7월부터 벽돌 건물을 기공하여 본관·병실·屍室·사체해부실·창고·소독장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옛 본관으로 사용하던 봉수당을 병실로 기타 세탁장, 창고, 간호부 숙사를 개축하여 1924년 5월 준공하였다. 부지 4,295평에 건평 762평을 새로 지었던 것이다.²⁸⁾

이렇게 화성행궁의 건물을 재활용, 또는 헐어내고 신축한 자혜의원은 1925년 경기도립수원의원(京畿道立水原醫院)으로 개칭되었다. 즉 외형적 변모와 더불어 일제는 1925년 4월 1일 「조선도립의원관제(朝鮮道立醫院官制)」와 「도립의원규정(道立醫院規程)」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자혜의원을 도립의원(道立醫院)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병원관리를 국가관리에서 지방의 도(道)로 이관시킨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화성행궁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1928년 남병동(南病棟) 49평(목조)과 1935년 서병동(西病棟) 25평(연화조)을 증축하였다. 또한 1933년 3,438평의 건물을 새롭게 신축 완공함으로써 화성행궁 정당한 봉수당을 비롯한 장락당·유여택·북내당 등을 헐어내고 2층 연화조의

28) 三木 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承前), 『中外醫事新報』(1936. 6), 278쪽.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상징적 건축물인 화성행궁을 헐어내고 일본의 힘과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근대적 병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화성행궁의 전각들은 철저히 훼손되어 갔던 것이다.

결론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수원경찰서 및 토목관구 그리고 신풍공립소학교 및 수원자혜의원 등이 설립되면서 일제 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조선의 몰락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600칸에 달하는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낙남헌(落南軒)만을 남긴 채 왜소한 조선식 단층건물과 2층으로 된 높은 큰 근대적 병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서 우월한 일본을 은연중 과시하며 조선인에게 열등감을 자아내게 했던 기제로 활용하였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 머물던 별궁(別宮), 이궁(離宮)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릉 참배 등 지방에 머물 때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으로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 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조 이래 모든 임금이 찾았던 화성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면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전통적 한옥의 가옥구조는 넓은 마당과 함께 해야 온전하게 그 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다. 단층의 한옥은 넓은 마당과 어울려야 그 단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덩그러니 낙남헌 하나만을 남기고 모조리 헐어버렸다. 따라서 덜렁 남겨진 낙남헌과 높다란 벽돌 건물의 자혜의원은 초라하고 낙후된 조선과 발전하고 위용에 찬 일본을 의연 중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보다 높은 문화의식과 자부심을 지닌 조선인들을 폭력과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보다 발달된 물질문명을 조선의 그것과 비교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우월한 일본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시나브로 조선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찰과 군대와 사뭇 다른 또 다른 일제 통치의 유효한 무기가 교육과 의료를 통한 통치방침과 연결된다. 하여 그렇게 남겨진 낙남헌은 일제시기 수원 군청(水原郡廳)으로 활용되면서 힘겹게 조선을 지켰던 셈이다. 해방 뒤에는 신풍학교 교무실로도 사용되었다.

1989년 10월 6일 화성행궁복원추진회(추진위원장 김동휘)가 구성되어 행궁복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이에 따라 수원의료원이 정자동으로 신축이전 되었고, 1996년 7월 19일 화성행궁 중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렇게 낙남헌은 수원자혜의원이 1911년 5월부터 화성행궁 자리를 차지한 이후 1992년 정자동에 의료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82년 동안 화성행궁을 홀로 씩씩하게 지켰던 셈이다.

이 글은 통감부시기와 일제강점기에 걸쳐 일제가 식민지 통치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화성행궁을 어떻게 활용하고 훼손했는지 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가 화성행궁을 훼손함으로써 조선왕조국가의 정신적 의식적 상징을 말살하고자 한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식민지 통치기구 가운데서도 식민지통치체제의 물리적 기반이자 억압기구로 기능한 군대와 경찰, 근대의료기관인 자혜의원이 수원지역에 들어오는 과정과 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글의 목적과 본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의 구성을 보면, 제2장에서는 식민지 통치기구(일본수비대, 수원경찰서, 수원헌병대)가 수원지역에 들어오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화성행궁을 점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의료기관(수원자혜의원)이 화성행궁에 설치됨으로써 어떻게 화성행궁이 훼손되었는지 서술하였다. 제2장은 총 원고 매수 13쪽 중에서 8쪽에 달할 정도로 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식민지 통치기구의 확장’이라는 논문의 제목과도 부합하며, 때문에 일본수비대, 수원경찰서, 수원헌병대의 설치과정을 소상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화성행궁의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략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자료의 한계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한 것이겠으나 일본수비대는 貳衛와 中營에 포진하였고, 수원경찰서는 북군영에 설치되었으며, 수원헌병대는 신평각의 남쪽 행각과 남군영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이 전부라는 점에서 일제의 화성행궁 훼손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이는 제3장 수원자혜의원 부분이 화성행궁 화령전에서 봉수당으로 이전되는 과정, 의료기관으로 개축되는 과정, 건물 구성과 용도까지 드러냄으로써 자혜의원 설치에 따른 화성행궁 훼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사실 관계와 자료에 관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수원지역 내 일본군 수비대 주둔 병력과 관련하여 1907년 12월 시점에 제3대대 본부가 주둔한다고 하였다(5쪽). 그러나 1907년 당시 대한매일신보 수원 관련 기사를 보면 동년 8월 3일 ‘수원군에 주재한 일본수비대장이 우리 병정의 탄약을 압수’했다거나 같은 해 9월 5일 ‘수원군 수비대에서 의병 유원선을 포살’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일본수비대의 수원 주둔 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경찰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1908년 7월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1909년 4월 ‘수원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광고를 보아 이 시기에 화성행궁 북군영에 설치했다고 서술했다(6쪽). 통감부는 1906년 6월 각 관찰부에 경무서 설치, 도내 주요 지역에 경무분서 설치, 각 도에 순검 1,273명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칙령 제30호 <지방 13도 각관찰부 경찰서 및 경무분서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경무서 13, 경무분서 26, 분파소 300개를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확정하였다. 경기도에는 경기경무서를 필두로 그 아래 개성·여주 분서를 두고 여기에 36개 분파소를 편제하여 각기 관할 구역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06년 10월 1일자 내부령 제11호 <각도경무서·분서·분파소 관할구역>과 내부령 제12호 <각도경무서·분서·분파소 경찰관리배치정원>을 보

면, 경기경무서의 관할구역을 수원군으로 명시하고 경무관 1, 총순, 1, 권임 2, 순검 21명을 배치하였다. 당시 수원지역에 경무분서나 경무분파소를 두지 않은 것은 경기경무서가 수원의 경무업무를 포괄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후 1907년 12월 27일에는 내부령 제4호로 경찰구역을 개정하면서 수원경찰서를 신설하여 수원군 외 9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이 법령을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한편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1908년 2월 6일 ‘수원경찰서 죄수가 도주’했다거나 1909년 10월 12일 ‘수원경찰서 수감 죄인이 옥사’했다는 기사 등은 수원경찰서와 부속 감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화성행궁 북군영에 수원경찰서를 신축할 당시 건축 구조와 건물 구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기반하고 있는 자료의 외연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근대법령자료집이나 통감부법령자료집, 각종 신문류, 통감부문서, 각 부서간 주고받은 왕복문서, 등록류 등 기왕에 간행된 자료는 물론, 화성행궁의 훼손과 관련한 사료 발굴도 급무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감부는 1908년 화령전의 정조 어진을 덕수궁 선원전으로 이전하고 화령전을 폐지했다. 아울러 陵院 祭享節次 개정을 통해 대한제국왕실의 의례행위를 폐기하는 등 왕실을 폄하하고 궁궐을 훼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국가의 최고 권위이자 민족성의 상징인 궁궐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의 존엄을 말살하고 국민의 저항을 방지하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재편하는 데 필요한 장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통치체제의 정비, 통치기구 설치 등과 짝하여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제가 조선민족성 말살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된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가장 규모 있는 행궁이자 수원유수부의 관아였던 화성행궁을 일제가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였는지 계획부터 추진과정, 그것이 미친 영향까지 검토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의 일단을 파악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의

김준혁(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들어가는 말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강점당한지 101년이 되는 해이고 조선읍성철거시행령으로 화성행궁의 파괴가 시작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화성행궁은 4대 개혁과제를 앞세우며, 위민정책을 추진했던 정조의 기반이었다.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통성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정통성 회복이 곧 왕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왕권의 강화로 자신의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조는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1789년(정조 13)에 있었던 현릉원 천봉이었다.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수원도호부 읍치로 이전되면서 수원도호부의 관아를 비롯한 행정중심지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했고, 정조의 결단에 의해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수원신읍치 조성 과정에서 1차 340칸의 화성행궁이 건립되고, 1794년부터 시작된 화성 건설에서 화성행궁의 규모도 확대되어 1796년 화성의 완공시에 576칸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화성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화성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개혁 추진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남쪽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정조 이후에도 그 정통성과 기능이 이어졌으며, 화성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대도회(大都會)로서 확대되어갔기에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의 관아로서 행정의 중심 역할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정조의 장기적인 양경체제(兩京體制) 구상에 맞물려 건설되었기 때문에 정조 사후에도 화성의 백성들은 정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행궁이 파괴되기 전까지 화성행궁과 화령전에서는 정조에 대한 제향이 왕실과 조정의 주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성행궁이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갔다. 실제 1910년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한제국 황실의 의도이기보다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통감부의 압력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성행궁의 파괴는 곧 민족의 아픔이었다.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의 공간이 친일 식민지 지

배를 위한 공간으로 둔갑된 것은 조선 백성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수원의 백성들은 일제강점기에도 화성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였고,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었다.

해방 이후 수원시민들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성행궁 복원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지역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하다. 그렇지만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와 새마을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적 바탕과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수원시민들은 화성행궁 복원에 관심과 복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그리고 학술대회와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을 추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에 화답하듯 경기도와 수원시가 화성행궁 복원을 결정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오기 전에도 수원시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화성행궁 복원을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건의하고 관청에서 수용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민관의 공동 노력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명소 화성행궁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의 한계이다. 불과 20여년 전에 추진했던 복원사업에 대하여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복원추진위원회 명단은 남아있지만 그들에 대한 구술 자료와 당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민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복원 과정이 역사의 부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사의 복원이자 문화유산의 복원이 간단한 기록과 설계도만이 남는다는 것은 화성성역의계를 만들어 화성의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후예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화성행궁 복원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수원지역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과 그로 인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향후 민관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복원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에 필자가 정리했던 돌아가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현재 생존하신 분들의 구술자료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 그리고 수원시의 기록과 현재 언론 기사 등이 이 글의 주요 사료이다. 이 글에 인용된 사료는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학술대회 이후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관련자분들 모두를 인터뷰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향후 문화유산 복원의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1. 일제강점기 이후 수원시민의 화성 복원 노력

일제강점기부터 수원시민들은 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원시민들은 화성의 보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조선일보 수원지국 기자는 부서지고 있는 수원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역시 이 내용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조간 1면에 기사를 실어 화성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깨어진 그릇이야 엇지하랴! 남은 그릇이나 깨뜨리지 말기를 바라노니 大里坪에서 水原을 展望할 때 맛보는 訪花隨柳亭! 華西門 間的 優雅 雄壯한 風光이든 『남광루』로부터 烽火臺를 지나 蒼龍門까지 城壁外部로 散步하는 中에 잇는 感興 等이야말로 果然 苦惱에 찌들린 우리의 靈肉의 安息處이며 그는 끝까지 保存할 우리의 것임은 重論을 要치 안는 것이다. 이 문허가는 城壁 問題는 細少한 枝末의 問題인 것 가트나 우리의 마음터에 찢리는 자리는 자못 큰 것이다.”¹⁾

이 기사의 표현대로 화성은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안식처요, 끝까지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화성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가치 인식이 화홍문 누각 복원을 위해 수원명소보존회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와 수원군청은 수원군 수원면의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팔달문에서 남암문과 남암문에서 동북각루에 이르는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화성을 홍물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며,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화수류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水原이여 왜 그러케까지 沒落하게 내어버려두는가 내 祖上의 피와 땀으로 남기어 논 그는 水原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냐?, 내가 봄에 봄마지하러 여름에 더위 이즈러 가을에 들 求景하러 겨울에 눈 求景하러 心火날때 火푸리하러 가는 그곳을 엇지 이다지도 沒落하게 放置하는가 그것이 잇슴으로 水原이 얼마만한 慰安을 바뎡스며 얼마나 水原에 對한 愛着이 깃헛든가 水原이여!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금자리! 訪華隨柳亭의 沒落을 막자! 우리의 誠意와 努力만 잇스면 그를 다시 되잡을 수 잇나니 成服後 藥方文格이 되지 말기를 곱히 곱히 바란다.”²⁾

이처럼 방화수류정을 비롯한 화성의 보존을 위하여 수원의 백성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화성은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화가 날 때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다. 이 화풀이는 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화성을 만든 우리들이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국민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화성은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었던 것이다. 방화수류정의 몰락을 막는 것이 결국 조선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으로 화홍문 누각은 복원되었고 방화수류정 역시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³⁾

방화수류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수원시에서 화홍문 누각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1925년 전국적으로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이 홍수로 인하여 화홍문 누각이 수원천 범람으로 소실되었다. 방화수류정과 함께 대표적인 화성의 시설물이 소실된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삼일학원과 매향학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원명소보존회가 1925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화홍문 복원을 위한 성금 모금과 함께 대한제국 황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이왕직(李王職)’의 복원 승인을 받아 1933년 5월 25일에 복원하였다.⁴⁾ 복원된 화홍

1) 조선일보, 1927년 7월 20일. 문허지는 수원성.

2) 위의 기사.

3) 방화수류정은 수원시민의 노력으로 거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 2011년 3월 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09호로 지정되었다.

4)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1. 263쪽.

문 누각에서는 수원실업협회 회원들의 모임이 개최되는 등 여러 행사들이 개최되었다.⁵⁾ 화홍문 복원에 이왕직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민들의 성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선의 명군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 성곽을 정조의 후손들과 상의해서 복원하는 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정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결국 화홍문 누각 복원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회복이자 독립운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시대 문화의 상징인 화성에 대한 수원시민의 의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다만 해방 이후 정국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으로 화성 및 화성행궁의 온전한 복원사업은 추진될 상황이 아니었다.

5.16 이후 최고회의 제93차 상임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과 향교재산관리법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총 7장과 73호의 부칙으로 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등을 선정하고 보호하도록 하였고,⁶⁾ 해를 넘겨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하였다.⁷⁾

이 문화재보호법은 해방 이후 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문화재 관리법안인 ‘사적,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보호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게 전해 줄 책임을 망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5.16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최고회의는 이승만 정부가 부패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민족문화의 수호와 청렴을 강조하였다.⁸⁾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유산 보호 의지가 수원에 있는 화성의 복원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그 첫 번째로 화성행궁과 함께 있는 화령전(華寧殿) 보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화령전은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돌아가시고 장헌세자의 묘소인 현릉원 재실에 소장된 정조의 어진을 이전하여 봉안한 ‘어진봉안전(御眞奉安殿)’이었다.⁹⁾

이후 정조의 대를 이어 국왕에 오른 순조와 헌종, 철종, 고종은 평균 3년여의 간격을 두고 화령전에 내려와 정조에게 제향을 올렸다.¹⁰⁾ 이처럼 정조 사후 역대 국왕들이 거동하여 참배를 한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전각이었다. 국왕의 화령전 거동시 화성행궁에서 재숙하였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화령전과 화성행궁은 조선 왕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고, 화령전은 화성유수가 매일같은 전각의 특이사항을 조정에 보고해야 할 정도였다.¹¹⁾

고종은 즉위 직후에 수원으로 행차가 없었으나 즉위 5년 3월 13일에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수원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한 규례를 재정비 하였다. 2년 뒤인 7년 3월 12일에 1795년 혜경궁 회갑연을 위해 행차 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화성행궁으로 행차하여 4

5)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기사.

6) 동아일보, 1961년 12월 7일 기사.

7) 동아일보, 1962년 1월 11일 기사.

8) 동아일보, 1961년 12월 29일 기사.

9) 『정조실록』 권3, 1년 5월 정축.

10)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58쪽.

11) 순조년간 화성유수를 역임한 서유구의 행정일기인 『화영일록』에 의하면 화령전의 기와에 와초(瓦草)만 생겨도 국왕에게 보고할 정도로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일간 유숙하였다. 이 기간동안 현릉원과 건릉에 친제한 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된 화령전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전임 현임 대신들을 불러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정조의 뜻을 기리며 고종 스스로 정조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1874년(고종 11) 2만냥을 들여 화성행궁의 지붕을 고치는 등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²⁾

화령전과 화성행궁이 정조 이후 왕실 및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 이후 화성행궁은 식민지 통치기구로 전락하고, 화령전은 조선총독부 산하 수원군청의 각종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조의 어진이 어느 시점에 화령전에서 사라졌는지 확인된 바 없지만 대략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화령전의 위상은 격하되었고, 1920년 덕성함양과 체력과 지혜를 위한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 총회가 화령전 풍화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집회는 대부분 친일 집회로서 화령전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집회에 더하여 화령전에서 기생들의 공연과 잔치가 벌어졌다. 일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 품평회를 화령전에서 몇일 동안 개최하면서 이곳에서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동해대곡예단(東海大曲藝團)의 기생들로 하여금 춤과 농악, 연화(煙火)를 개최하였다.¹³⁾ 국왕의 어진을 모신 사당을 놀이터로 만든 것이다.

특히 화령전의 중심 건물인 운한각은 공수도 도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제의 화령전 가치에 대한 훼손은 극에 달하였다. 더불어서 화령전 편액과 운한각(雲漢閣) 편액 등이 모두 사라져서 건축물의 외향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화령전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6년 화령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고, 수원시민들이 오랫동안 화성과 화령전을 지켜온 것을 높이 받들기 위하여 화령전 보수의 의미를 두었다.¹⁴⁾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운한각(雲漢閣)’을 써서 설치하였다.¹⁵⁾ 대통령이 직접 편액을 쓰는 경우는 이후 자주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편액이 19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66년에 문화재의 편액을 쓴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1966년에 화령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한 것은 바로 수원시민들이 화홍문 복원사업부터 시작하여 정조의 얼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정부에서 수원시민들의 화성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화령전에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화성의 복원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원시의 이상적인 결합의 노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수원시민의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설립

해방 이후에 화성행궁의 복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의 내용

12)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61쪽.

13) 조선일보, 1927년 10월 31일 기사.

14) ‘화령전 중수 기념문’. 1966년. 현재 화령전 운한각 내부의 정조 어진을 모신 합자 오른편 상단 벽에 설치되어 있다.

15) 현재 이 편액은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사항에 의거하여 철거되어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써야 했던 무지의 시대였고, 더욱이 화성행궁 터에는 관공서와 병원이 자리잡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를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일을 쉬운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1975~1979년 5개년 계획으로 국비 32억8천600만의 재원을 들여 화성성곽을 복원한 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수원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화성행궁 복원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였다.

처음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움직임은 수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4월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전 수원시장)은 향토 사학자 이승언에게 수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심재덕 문화원장은 정조가 수원을 건설하고 수원에 내려와 거주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궁궐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고 당시 젊은 향토사학자이자 지우(知友)인 이승언씨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이승언씨는 그 부탁을 받고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 수원에 관한 조선시대 사료(史料)가 있을 곳을 찾은 결과 5월에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칼라로 된 『화성행궁도』 사진과 필름을 받아왔다.¹⁶⁾

이 일을 계기로 6월부터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 발기인 모임이 수원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¹⁷⁾ 몇 달 뒤인 1989년 9월 30일 화성행궁 복원 추진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수원문화원에서 가졌다. 이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은 심재덕 문화원장이 맡아 준비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1989년 10월 6일 개최하여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¹⁸⁾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작은 의미로는 정조시대 이후 200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주입된 서울의 변방 의식에서 탈피해 상처받은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원 시민의 열망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는 정신적 바탕을 이루자는 것이다.

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냉소가 있기도 하였다.¹⁹⁾ 복원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 수원의료원을 이전하고 화성행궁을 복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화성행궁 터에 수원의료원의 증개축이 결정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된 낡은 병원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기 위한 설계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만약 복원이 되기 전에 초현대

16) 심재덕 구술(김준혁 정리),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3쪽.

17) 발기인 명단(무순) : 심재덕, 안익승, 이실경, 최봉수, 송순호, 서봉도, 이종학, 리제재, 이천우, 이병규, 최홍규, 박용렬, 조한식, 정규호, 김운성, 조정환, 박환규, 이승원, 이종대, 김동휘, 오상근, 이승언, 이재영, 성병길, 감용구, 문제복, 전용택, 정령향, 김우영, 임병호, 송철호, 이종덕, 유재영, 안희두, 최종엽, 이상봉, 홍사일, 홍의선, 차의순, 차재익, 이창식, 이흥구.

18)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심재덕, 홍의선, 안익승, 추진 본부장 이흥구, 기획부장 임병호, 총무부장 송철호, 사료편찬부장 이승언, 섭외부장 김상용, 홍보부장 김우영, 이사 김동욱, 김학두, 리제재, 송태옥, 이상봉, 이완선, 조운호, 최홍규, 감사 이근환, 정규호, 강용구, 위원(가나다순) 강한영, 구중서, 권용택, 김병오, 김상용, 김운성, 김인기, 김정만, 김학선, 남부희, 문기호, 문제복, 박병찬, 박상봉, 박언곤, 박원호, 박용은, 박종무, 박찬균, 박환규, 백석현, 백충기, 송경섭, 송철호, 오갑진, 오병호, 오익환, 유재영, 유철현, 윤규섭, 윤대철, 윤수천, 이도형, 이명재, 이병렬, 이보현, 이상길, 이재인, 이재원, 이재영, 이종대, 이종원, 이창식, 이흥구, 임병호, 임영석, 임용상, 이광일, 정운엽, 정일향, 정학균, 조희문, 차석정, 최홍식, 한상욱, 홍기준, 홍사일, 홍성선, 홍성원, 홍순범, 홍신선.

19)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식 건물이 들어선다면 영원히 화성행궁을 복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김동휘 위원장(현 등잔박물관장)과 경기도 유네스코 회장 안익승 선생(작고), 심재덕 수원문화원장 등이 임사빈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다. 이 결과 임사빈 지사는 흔쾌히 화성행궁 복원을 위하여 수원의료원의 신축을 그만두고 이전을 약속하였다.²⁰⁾

수원의료원 이전 확답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 복원의 학술적 뒷받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의 ‘사신도(四神圖)’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학술업무와 사료편찬부장 맡고 있던 이승언은 규장각에 있는 사도세자의 『현릉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에서 사신도를 발견하고 1789년 12월 7일이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²¹⁾ 사신도는 죽은 사람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덤의 벽이나 관 내부에 주작·현무·백호·청룡 등을 그린 것으로 평안도 강서지방의 대묘(大墓)와 용강군의 쌍용총 등 고구려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으나 조선시대 왕릉이나 세자의 묘소에서 발견된 것은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처음이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신도의 원화 발견으로 조선시대 역사 연구와 미술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²⁾ 이처럼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는 화성행궁의 복원만이 아니라 정조시대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단순히 이승언의 발표만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 학술대회의 마지막 차례로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제1차 건의 사항

1. 수원 화성행궁지인 수원시 남창동 6의2(수원의료원 소재지) 신평동 256(구 경기도 여성회관 소재지), 신평동 257(수원경찰서 소재지) 등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 요망.
2. 현재 행궁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전토록 조치하여 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행궁과 아름답게 조화된 수원천을 비롯한 자연경관이 옛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책 수립 요청.²³⁾

이와 같은 복원추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마침내 1990년 12월 22일 화성행궁의 중심부이며 대부분의 건물이 위치한 수원의료원이 이전하였고, 1993년 8월 10일에 화성행궁 복원이 시정 중점시책으로 선정되어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행궁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행궁복원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설명회와 더불어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²⁴⁾

1994년 3월에는 시비 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지에 대한 유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해 5월 13일에는 구)수원의료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어 1995

20) 김동휘 구술. 2003년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에 앞서 김동휘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수원의료원 이전과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내용을 구술하였다.

21) 이한기, 『수원화성행궁 자료에 대하여』,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1989, 경향신문, 1989년 12월 8일 기사

22) 위의 기사.

23)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7쪽.

24) 화성행궁 복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심재덕, 부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안익승, 위원 조정환, 김용규, 유재언, 최봉수, 송후석, 남우철, 김주태, 김동휘, 이상해, 박언곤, 윤규섭, 이제제, 임택명, 이종학.

년 4월 24일 화성행궁지가 경기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수원의료원이 화성행궁 부지에 신축되어 영원히 복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은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은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화성의 보존과 복원에 헌신해 온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3.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정책과 노력

수원의료원 이전과 경찰서 등 관공서 이전 확정 이후 수원시는 화성행궁복원사업을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수원의료원 이전과 신축 문제를 해결한 수원시민들의 헌신적 성과에 화답 하듯 수원시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1993년 4월에 화성행궁 복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먼저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계획과 예산을 동반하여 행정부가 복원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행궁 복원을 위한 기초 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시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 12월 행궁지 1차 발굴조사를, 1996년 8월에는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발굴조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었기에 발굴조사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도(御道)가 확인되고, 지하에 매몰된 장대석 열(長臺石列)이 확인되어 다른 유구의 잔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차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도, 경룡관지, 유여택지, 복내당지 등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장대석 이외에 석누조 등 각종 유구 등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1, 2차 발굴조사의 성과로 화성행궁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²⁵⁾ 발굴조사는 제3차로 1998년 8월 12일부터 1998년 10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주도하여 유여택 등의 초석을 발굴하였고, 4차 발굴조사는 1997년 7월 29일부터 1999년 10월 11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중앙문과 외정리소 일대의 초석들을 발굴하였다. 제5차 발굴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역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주관하였으며 화성행궁 당시의 것이 아니라 최근 교란된 유구를 발견하였다.²⁶⁾

사실상 1차 발굴에서 화성행궁의 주요 전각 위치를 대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실시설계 시 화성행궁 복원 시점을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1796년(정조 2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화성의 완공이 1796년이기에 화성행궁 역시 그 시기에 최종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정조 사후 화성행궁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²⁷⁾

수원시는 1996년 5월 3일 경기도로부터 행궁복원에 대한 설계승인을 받아 7월 1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²⁸⁾

충실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12일에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의 상량식을 갖게 되어 화성행궁 복원에 한걸음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6월에 있었던

25) 『화성행궁지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수원시,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1997. 17쪽.

26)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104~122쪽.

27)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78쪽

28) 『화성행궁 복원보고서』, 수원시, 2002. 24쪽

시장 선거에서 화성 및 화성행궁의 복원을 주장한 심재덕 문화원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사업은 수원시의 역점사업이 되었다. 심재덕 시장은 처음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결성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행궁 복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원시는 1996년 수원성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200년 효의 도시, 2000년 꿈의 도시’를 주제로 내걸고, 화성행궁 복원, 효행대문 건립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개 주제는 역사속의 수원, 살맛나는 수원, 아름다운 수원, 세계속의 수원, 쾌적한 수원이었다.

주요 기념사업으로 화성행궁 복원, 성곽 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 효의 성곽 순례 및 봉수대 거화 등 전통 문화사업, 수원 200주년 뮤직페스티벌 등 축제행사, 효행대문 건립, 수원 갈비축제, 세계연날리기 대회 등 수원 상징행사, 국제컨벤션시티 건립, 광고산 시민 휴양지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의 100년을 내다보기 위한 209E 기획단도 만들어 수원시의 미래를 기획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성행궁 복원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2002년까지 1차 복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다.²⁹⁾

1997년 7월 봉수당 상량식에서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선언하였다.

“민족의 정기와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화성행궁은 바로 그 화성의 모태로서 화성행궁의 복원을 통해 민족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재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³⁰⁾

당시 화성행궁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복원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경복궁복원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왕실건물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³¹⁾

1997년 12월 심재덕 시장은 수원농생명고등학교 동문회보에 화성행궁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글을 실었다. “앞으로 화성행궁이 완전히 복원되면 이곳은 효의 성역으로 가꾸어지고 민족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행궁은 수원시장의 절대적 복원의지와 함께 수원시의 주요 과제로 지속적 사업이 되었다.³²⁾

1998년 수원북중 동문회보에도 화성행궁 복원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화성행궁은 일제시대 그들의 민족정기와 역사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으나 현재 주건물인 봉수당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복원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 효의 살아있는 교육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³³⁾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 7월 1일 수원시의 지방자치제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심재덕 수원시장은 세계 문화유산 화성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복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적 활용하여 수원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³⁴⁾

29) 경향신문, 1995년 11월 30일 기사. 동아일보 1995년 12월 1일 기사.

30) 심재덕, 「화성행궁 봉수당 상량식 식사」, 1997.

31) 동아일보, 1996년 7월 11일 기사.

32) 수원농생명과학고 동문회보, 1997년, 12월. 심재덕 기고문.

33) 수원북중 동문회보 11호, 1998년 6월. 심재덕 기고문.

34) 민선2기 수원시장 취임사, 1998년 7월 1일.

심재덕 시장은 화성행궁의 복원이 수원시의 노력만이 아닌 시민과 관의 공동 노력에 의한 사업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³⁵⁾ 이것이 바로 민관 협력에 의한 최초의 문화유산 복원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1997년 12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화성행궁의 복원은 한층 가속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화성은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1997년 12월 4일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당시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1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 108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협약 가입국의 문화유산중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이 가치있는 문화유산에 화성이 당연히 등재된 것이다.

당시 화성은 세계유산 등록기준 ii ‘한 시대나 하나의 문화권을 통해 건축, 기념물, 문화 환경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과 iii 소멸된 문명이나 문화전통에 대해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한 사례,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에 근거하여 등재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는 “화성은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대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다.” 라고 하였으며, 국제기념물유적협회는 “화성은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여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심사위원으로 화성을 방문한 실바(Nimal De Silva) 교수는 “화성의 역사는 불과 200년 밖에 안됐지만 성곽의 건축물이 동일한 것이 없이 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였다.³⁶⁾

이와 같이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화성 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화성행궁에 대한 복원 역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1998년 3월 25일 화성행궁 봉수당이 복원되었다. 경통관과 장락당 등도 같은 복원되었는데 이 복원식에 2000여명이나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³⁷⁾ 당시 기사에서도 화성행궁 봉수당 복원에 공로를 기여한 곳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봉수당 복원 이후 총 공사비 325억원을 들여 장락당, 유여택, 경통관, 신평루 등 주요 건물들을 복원하여 2002년 7월 26일에 1단계 공사로 482칸, 3261.23㎡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단청을 하였으며, 궁중유물전시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을 모각하여 봉수당 등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10월 9일 역사적인 화성행궁 개관식을 거행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³⁸⁾

화성행궁 개관에 앞서 민선3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김용서 시장 역시 민선 1,2기의 화성 복원 정책을 계승하여 화성의 문화관광 사업 확대와 더불어 화성과 화성행궁의 모든 것을

35) 해병대사령부 창설 50주년 기념 축사. 1999년 1월. “정조께서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화성 성곽을 축성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화성행궁을 건립했습니다. 화성은 지난 97년말 유네스코로부터 빼어난 기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능행차 때마다 묵으셨던 화성행궁은 일본 무력통치 시기에 저들의 민족정기 말살 정책으로 인해 훼손됐으나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복원 중입니다.”

36)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71~174쪽.

37) 경향신문, 1998년 3월 26일 기사.

38)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174쪽.

이해할 수 있는 성곽테마박물관(현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을 천명하였다.³⁹⁾

2003년 10월 9일 개관식에 김용서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의 공로에 대한 언급을 직접 거론하였다.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정조대왕(正祖大王, 在位 1776~1800)께서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침(園寢)을 참배하기 위해 목었던 궁(宮)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 행궁 중 최대규모였다. 하지만, 화성행궁의 여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병원·군청·경찰서 등이 들어서면서 낙남헌만 남고 모두 파괴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수원의료원 증축 계획이 수립되어 화성행궁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뜻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원 증축 반대 및 화성행궁 복원운동을 전개하였다. 화성행궁의 복원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 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에 이르러 역사적 개관을 하게 되었다. 2003. 10. 수원시장”⁴⁰⁾

화성행궁 복원은 1단계로 복원정비 : 482칸, 발굴조사 : 13,200㎡, 토지매입 8,846㎡, 건물매입 28동으로 사업비 32,533백만원(국비 2,700 도비 4,979 시비 24,854)가 투입되었다. 2단계 복원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와 맞물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⁴¹⁾

수원시는 2003년 10월에 ‘수원시 화성행궁 관람등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여 행궁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수원 화성행궁을 찾는 관람객은 3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일같이 화성의 자랑인 무예24기 시연과 주말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조시대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오는 말

이제까지 화성행궁 복원에 대한 민관의 합동 노력을 살펴보았다. 수원시민이 건의하고 수원시가 받아들여 복원한 화성행궁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복원사에 있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화흥문 누각을 복원하기 위한 ‘수원명소보존회’의 창립과 모금은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이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화성행궁 복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화성행궁 복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체 면적의 반 정도의 공간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 복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복원 사업에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추진했던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화성행궁 복원사는 단순히 수원지역에 있었던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달사이다. 우리 사회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문화유산의

39) 2002년 수원시장 송년회사. 2002년 12월 31일.

40) 「화성행궁 복원 비문」, 수원시. 2003.

41) 화성행궁 2차 복원 예상 총 사업비 : 30,000백만원(국 5,000 도 10,000 시 15,000).

복원은 철저히 관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시민의 주창과 경기도와 수원시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이다. 이 사례는 향후 민족문화유산 복원사업에 있어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화성행궁 복원사업과 관련된 세세한 자료가 거의 없다. 자료 관리의 소홀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화성행궁 복원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것과 당시 관련자 모두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구술사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조의 화성건설의 의미와 복원사업이 모두 하나의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일이거니와 수원의 문화도시 위상을 복돋는 일인 것이다.

인문학 도시 수원 만들기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화성복원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이들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작은 정성인 것이기도 하다.

“민관 협력을 통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민관 협력을 위한 수원학과 수원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윤유석(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

인간 삶의 총체인 문화 중에서 비로서 자원이나 재화가 되는 것은 그것의 정신적·정서적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 가치를 보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말한다(리케르트, 1926; 이장춘, 1998; 남치호, 2007). 발표자가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에서 주목한 것도 ‘화성행궁이 역사문화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 특히 수원사람들이 화성행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노력했는가’이다. 그래서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는 단순히 문화재 복원의 역사라기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재화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발표자가 발견한 화성행궁 복원 역사의 의의와 시사점은 ‘문화를 지키고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문화재도 있다’라는 점이다. 수원의 문화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그 자체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수원문화원의 수원학 세미나에서 이러한 주제를 발표한 이유는 ‘문화를 지키고 만들려는 사람들’을 수원문화원이 어떻게 모이게하고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토론자는 “민관 협력을 위한 수원학과 수원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토론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화성행궁 복원 역사가 보여준 문화유산 복원사업의 표준모델 요소는 무엇인가?

발표자는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수원 시민의 주창과 관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문화유산 복원사업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민관협력의 표준모델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나 원리가 무엇일까? 그 모델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2. 우리 시대 사람들이 화성행궁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화성행궁의 의미는 누가, 언제, 어디서 느끼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수원신읍치를 건설하려던 정조가 부여한 의미, 왕실의 종묘사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종이 부여했을 의미, 민족 자존심을 잃은 식민지 국민이 부여했을 의미, 서울의 변방 의식에서 탈피하려는 지역민이 부여하는 의미 등 사람들이 화성행궁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해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수원 사람들, 나아가 서울 사람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 외국 사람들까지 화성행궁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원학은 화성행궁에 대해 효, 민족정기, 지역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소재와 주제를 찾을 것인가?

3. 수원시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시민이 먼저 문화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계획과 예산이 동반해 왔다는 것이다.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도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계승된 것이다. 이는 문화재의 수준은 곧 시민의 문화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수원시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역사적 배경,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지역 토착민들이었나, 이주민이었나?, 그들의 문화시민 자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4. 故심재덕의 역할이 없었더라도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을까?

복원사업에 있어 故심재덕의 역할은 컸다. 문화재 복원사업에 있어 풀뿌리 시민들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이 있어야 민관협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5. 구술사 자료로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는가, 왜 구술사인가?

복원사업 관련 인물들의 구술사 정리는 문화재라는 유형유산에 내재된 혹은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노력과 창의력 등의 무형적 가치를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한 역사화 과정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복원사업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술사 연구방법론과 역사서술 방법론은 무엇인가, 왜 구술사인가?

수원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 가치

-역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심승구(한국체대 교양학부 교수)

1. 머리말
2.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3.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4.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5. 나머지 말

1. 머리말

이 글은 화성행궁(사적 478호)의 ‘파괴와 복원 100년’에 즈음하여 행궁 복원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활용방안과 미래적 가치를 전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¹⁾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의문과 관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 화성행궁의 복원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단순한 역사유적의 복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수원 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물음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마도 그 같은 의문은 현재 추진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화성행궁의 2차 복원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둘째,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잘 알고싶이 화성행궁은 화성유수부와 원행을 위한 공간이다.²⁾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같은 걸로 드러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행궁에 대한 역사적 천착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수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때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화성행궁은 수원화성의 심장이요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행궁의 복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화성행궁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행궁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파악은 선결 과제인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의 활용에 대한 성찰이다. 이미 화성의 중심이 된 화성행궁은 화성성곽과

1) 그 동안 필자는 수원 화성과 관련한 몇 가지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전시 연구>>, 수원시화성사업소, 2006.

심승구,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재연연시 고증연구>>, 수원시, 2007.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복원과 전망>, <<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08.

심승구, <<수원 화성의 궁중문화 축제(진찬, 과거, 야조)의 고증연구>>, 화성운영재단, 2008.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 6호, 수원학연구소, 2009.

2) 최홍규 외,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이외에 화성행궁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함께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행사와 전시, 그리고 이벤트와 축제가 행궁 주변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역사공간을 대중들에게 소통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들이다. 다만, 이 같은 화성행궁의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그동안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온 느낌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함께 공유하고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고민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왜 역사공간의 복원인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장기 지속의 지리적 공간 위에 완만하게 흐르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현실 공간은 오랜 과거의 시간들이 켜켜히 쌓이고 깔려 있는 짙은 역사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공간은 이미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기억의 장’이 틀림없다.³⁾

그러한 역사적 공간 위에서 현대인들은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위하여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필연적으로 역사적 공간을 수없이 지우고 살아가는 운명에 놓여 있다. 바꿔 말하면, 현실의 공간은 이미 역사적 흔적과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 지워진 상태다. 과거의 공간을 지워야만 현실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실은 도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곳곳에는 과거로부터 현실까지 살아있는 공간, 희미하게 잔존되어온 역사의 공간들이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삶은 바로 도시의 공간 속에 무너지고 지워진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만일 역사적 공간을 다 지울 수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전통과 현대의 공간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정체성은 시공간 속에 새겨진 지역의 나이테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공간의 내부구조와 흔적을 통해 그 성취를 읽어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개체적 경험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집단적으로 축적한 지식 정보를 뒷 세대에 전달하는 역사적 존재다.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이야기이며,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이 된다. 한 도시의 인간도 공간의 역사를 통해 지역의 인간으로 탄생한다. 인간의 삶의 조건인 역사적 공간이 인간을 키워내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⁴⁾ 역사적 공간이 소멸된 곳에서 문화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사의 공간을 파손하고 문화의 기억을 삭제해가면서 세우는 도시란 상상력이 거세된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또한 부수고 훼손하는 도시는 문화를 꿈 꾸기 어렵다.

도시는 역사적 공간을 통해 색(色)과 향(香)과 미(美)가 묻어나는 이야기의 꽃으로 역사와 철학, 미술과 음악, 그리고 시와 노래를 만들어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통과 현대가

3)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인문콘텐츠>>21, 2011. 24쪽.

4) 상동.

공존하는 밤하늘 풍경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나고 싶다. 화성의 팔달신 서장대에서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 저녁을 일깨우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도시를 만나고 싶다. 이제 우리의 도시는 역사를 배우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화를 만드는 상상력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역사공간의 복원은 그 출발점이다. 삶의 에너지도, 도시의 창조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3. 화성행궁의 역사적 정체성

1) 행궁의 개념과 의미

예로부터 임금의 수레가 머무르는 곳을 '행재(行在)' 또는 '행궁(行宮)'이라 하였다.⁵⁾ 이때의 행(行)은 '다닌다'의 뜻이 아니라 '돌다'의 의미로서, 순행(巡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행궁은 곧 '임금이 행행(行幸)할 때 머무는 숙소(宿所)'를 가르킨다.⁶⁾ 이처럼 행궁은 평상시 임금이 상주하는 궁궐에서 나와 거동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을 뜻한다.⁷⁾ 또한 행궁은 행전(行殿)이라고도 하였다. 행전은 행궁과 유사한 뜻이면서도 그 격을 높힐 때 주로 사용하였다.⁸⁾

당시 궁궐 중에 법궁(法宮)은 곧 임금이 남면(南面)하여 다스림을 내는 곳이고, 이궁(離宮)은 임금이 상하는 법궁(法宮)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행궁은 주로 출궁하여 임어(臨御)하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행궁은 주로 도성 밖 행차 때 머무는 공간을 뜻하였으나, '정릉동행궁'이나 '육상궁행궁(毓祥宮行宮)'처럼 도성 내 임어공간에서도 행궁이라는 말을 썼다.⁹⁾

원래 국왕의 움직임은 '거동(舉動)'이라 하였다. <<춘추전(春秋傳)>>에 따르면, "거동은 임금의 큰 의절(儀節)로서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¹⁰⁾고하여, 국왕의 출입에 많은 인원과 의식 절차가 뒤따랐음을 말해준다. 거동의 본딧말인 거동은 '일거일동(一舉一動)'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국왕의 나들이를 폭넓게 나타낸 용어다. 고대 국가의 제왕들은 수레를 타고 출입했으므로 이를 '동가(動駕)'로 불렀다.¹¹⁾

특히 고대 중국의 갑골문에서 확인되듯이, 일찍부터 임금의 나들이를 '행행(行幸)'이라 하

5) 人君所駐 既曰行在 又曰行宮(<<세종실록>>권95, 24년 2월 갑인).

6) 臣則曰, 人君行幸宿所, 多在郡邑公廨, 稱以行宮者, 自是例也, 水原邑治, 寬敞之廨, 尙多不可傍照行宮之例, 而作爲櫺星耶(<<승정원일기>> 1665책, 정조 13년 9월 29일(임자)).

7) 왕이 행행 시 머물러 자는 것을 지숙(止宿)이라고 하였다. 행궁을 대신하는 말로는 행재 또는 행재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經國大典>>卷4, 兵典, 雜類, 用刑). 이외에 행궁은 이궁(離宮), 주필지(駐蹕地), 숙어소(宿御所), 이어소(移御所) 등으로도 쓰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임금이 거동 가운데 궁궐 내에 머물러 정사를 보는 곳을 시좌소(時坐所) 또는 시어소(時御所)라고 하였다.

8) 행전(行殿)에는 방룡(房櫳)·완점(莞簟), 장악(帳幄)·궤안(几案) 등 국왕을 상징하는 물건이 갖추어졌다(<<정조실록>>권44, 20년 2월 11일(정해)). 따라서 행궁이 단순히 공간을 의미한다면, 행전은 이러한 기물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였다. 다만, 행전은 숙소가 아니더라도 모화관행전(慕華館行殿)처럼, 장전이 설치되어 공간을 부르기도 하였다(<<철종실록>>권6, 5년 8월 24일(경신)).

9) <<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계해). 한편, 이궁은 임금이 정궁에서 벗어나 도성 안이나 밖으로 거동할 궁궐을 말한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후 한양에서 궁궐을 지을 때 이궁조성도감(離宮造成都監)을 둔 사례나 성종때 거동할 창덕궁을 이궁이라고 말한 사례가 확인된다. 행궁 또한 도성 내외를 가리지 않고 임금의 머무는 공간을 말하지만, 행궁은 거의 대부분 도성 밖의 머물 때의 숙소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행궁의 구체적인 개념과 변화, 기능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0) <<태종실록>>권2, 1년 8월 병자.

11) 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수원학>>6호, 2006. 75~77쪽.

였다. 행행(行幸)은 "한 사람의 거동이 만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一人之行 萬人之幸)"는 뜻이 담긴 말이다.¹²⁾ 임금이 여러 지역을 돌며 행운을 전한다고 해서 '순행(巡幸)'으로 쓰기도 하고, 임금의 수레가 머무는 곳에 백성이 그 덕을 받는다는 뜻에서, '요행(繞幸)'이라고도 하였다.¹³⁾ 오늘날 '뜻밖에 얻는 행운'을 요행이라 표현하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전통사회에서 백성이 임금을 만나는 일은 더없이 크나큰 행운이었다. 행행(行幸)은 유교사회였던 조선왕조에서 군주의 덕을 보여주는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용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에서 국왕의 도성 밖 나들이는 모두 '행행'이라고 하였다.¹⁴⁾ 조선후기 정조의 현릉원 참배를 '원행(園幸)'이라 부른 까닭도 바로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행궁(行宮)은 '임금이 행행(行幸)을 위한 숙소인 별궁'을 의미한다. 특히 정조는 화성행궁을 통하여 효의 실천과 민생을 살피 군주의 덕을 베풀어 왕도정치를 실현함은 물론 군민동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단순히 명분이나 꿈과 같은 추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성을 비롯한 수많은 행행을 통해 민생의 고통과 질고를 살핀데서 뒷받침 된다.

2) 조선 이전의 행궁의 변천

행궁의 기원은 궁궐의 구성과 그 궐을 같이 해 왔다. 따라서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궁궐과 함께 행궁도 세워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행궁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 가운데 백제 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백제의 제16대왕 '진사왕(385~392재위)'이 구원(狗原)으로 사냥을 갔다가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¹⁵⁾ 행궁이 이미 4세기 중엽에 사냥을 위한 국왕의 임시 숙어소(宿御所)로 쓰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고구려의 2대 유리왕 때에는 이궁(離宮)의 기록과 3대 태조왕이 선위한 후에 별궁(別宮)에서 죽은 사실이 보이며,¹⁶⁾ 백제의 아신왕이 한성별궁(漢城別宮)에서 태어난 기록도 확인된다.¹⁷⁾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도성의 궁궐 이외에 이궁, 행궁, 별궁 등이 분명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치열한 정복전쟁이 계속되던 삼국시대에는 피난을 위한 이궁, 순행(巡行)과 군사훈련을 위한 행궁이 상당수 마련되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고려초기인 현종 때 거란군의 침략으로 전주에 파천했던 왕이 여양(여산), 공주를 거쳐 귀환하던 중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베푼 내용이 보이는데 하면,¹⁸⁾ 한양의 용산행궁,¹⁹⁾ 해주행궁,²⁰⁾ 홍왕사 행궁²¹⁾, 평양행궁, 충주행궁, 안동행궁, 상주행궁 등 다양한 행궁이 확인된다. 특히 수많은 외침에 따라 국왕의 파천이 빈번했던 만큼, 피난처로서 강화의 이궁과 함께 전국적으로 행궁이 출현하였다. 더구

12) 行幸 一人之行 萬人之幸 (<<經國大典抄解>> 禮典, 行幸).

13) <<經國大典註解>>下, 兵典 侍衛, 巡幸.

14) 조선시대에 국왕의 거동을 '행차(行次)'라 하지 않고, '행행(行幸)'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심승구,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75~80쪽).

15) 이때 구원은 평안북도 개천군(价川郡)으로 짐작된다(<<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3, 진사왕 8년).

16)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1, 유리명왕 3년.

<<삼국사기>>권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94년.

17) <<삼국사기>>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8년.

18) <<고려사>>권4, 세가 제4, 현종 1.

19) <<고려사>>권89, 열전 제2, 후비 2.

20) <<태조실록>>권1, 충서.

21) <<고려사>>권122, 열전 제35, 환자 안도적.

나 고려사회는 풍수도참사상의 영향아래 동경, 서경, 남경의 삼경설(三京說)에 따라 여러 지역에 이궁을 설치하였다. 또한 명종때에는 지리쇠왕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업(基業)을 연장시키고자 개경 둘레에 삼소(三蘇)를 두어, 좌소(左蘇)인 백악산(白岳山), 우소(右蘇)인 백마산(白馬山), 북소(北蘇)인 기달산(箕達山)에 각각 행궁을 짓고 주기적으로 순행(巡幸)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에 흥미로운 사실은 능행을 위한 행궁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고려왕조는 오례(五禮)체제를 확립하면서 교외에 거둥하여 지내는 환구(圜丘), 배릉의(拜陵儀), 선농적전(先農籍田) 등의 제사를 위한 행궁(行宮)을 마련하였다. 즉 국왕의 친향절차(親享儀)가 마련되면서, 치재(致齋)를 하루 전에 행궁(行宮)에서 지냈다.²²⁾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야외 제사를 위한 행궁이 필요하였다. 특히 왕릉에 참배하는 의식(拜陵儀)의 경우에 사전에 행궁은 다 능 앞에 적당한 터를 잡아 마련하되, 왕은 하루전날 행궁에 도착하여 재숙(齋宿)하였다.²³⁾ 배릉의가 정비되면서 능행(陵幸)을 위해 행궁이 설치한 점은 이 시기 행궁의 중요한 특징이었다.²⁴⁾ 조선시대 능행을 위한 행궁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불교사회였던 고려시대에는 홍왕사행궁과 같이 사찰이 행궁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3) 조선시대 행궁의 추이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행궁도 변화하였다. 우선, 신왕조의 수도가 바뀌자 한양에는 새로이 법궁과 이궁이 세워졌다. 반면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법궁과 이궁들이 폐지되고 대신 행궁이 들어섰다. 그리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왕의 거둥이 한양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조선 국왕의 왕릉들이 도성 밖 경기도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종래 개성 중심의 고려 왕릉들이 분포되었던 사실과 대비된다.

또한 한양으로부터 일정한 지점의 거리에 새로운 주정소와 행궁이 정해졌다. 한양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도로망과 도로 거리를 기준으로 각지에 행궁을 미리 정하였다. 여기에 왕릉이 늘어나면서 능과 연결되는 능행길과 행궁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왕의 도성 밖 출입의 날짜에 근거한 새로운 도로망과 숙박시설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 공간의 재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행궁은 본래 정해진 공간이 일정한 국왕이 도성 밖으로 출궁함에 따라 이름 붙여지는 공간이었던 만큼, 시대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다. 태조때에는 함흥으로 행차하는 바람에 안주를 비롯한 함경도 지역에 행궁이 생겼고, 태종때에는 이성계의 옛 집을 행궁으로 삼았고, 강무를 위해 광탄, 철원, 완주, 연천, 광주, 상촌, 춘천, 순성, 직산, 분수령, 강화, 삼기행궁 등이 보인다. 이는 조선 건국이후 강무(講武)제가 확립되고 순행(巡行)을 위한 국왕의

22) <<고려사>>권59, 지 제13, 예 1, 길례 대사 1, 원구.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고려사>>권62, 지 제16, 예 4, 길례 중사, 적전.

23) 諸陵. 拜陵儀 將拜陵所司承制內外宣攝 隨職供辦王御別殿齋心兩日 凡行事執事官及從駕衆官各於本司清齋一日無本司者於公所 前發一日奏告太廟如常儀 所司預掃除所拜之陵及室內務極潔淨不得喧雜 尚舍局於陵近所設行宮 鋪王座如常儀 行宮皆於前所量地之宜 又於陵室之側量設小次 奉禮設王拜位於陵東南隅西向其有山谷隱映則隨地設位望陵而拜又設拜位於陵室階下之東南南向設行事官位於王位之南稍東又設隨駕兩府拜位於門外以西爲上門非南向則量地之宜設文武百官位於其後兩班相對爲首所司備珍羞庶品務極豐潔 前一日晡時王至行宮綴扇華蓋導從如常儀 若拜日至行宮則未明五刻鑾駕動如常儀 王至望陵拜所侍臣退合班立 太常博士引太常卿太常卿引王至拜位立太常卿前奏 請再拜 王再拜 奉禮曰 再拜 贊者承傳宰臣樞密侍臣及隨駕衆官皆再拜訖王至行宮齋宿 (중략) 訖王還齋宮侍衛如常 (<<고려사>>권61, 지 제15, 예 3, 제릉).

24) 심승구,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현대화 방안연구>>, 국가보훈처, 2007. 11~14쪽.

행차가 많아짐에 따라 경기, 황해, 강원, 충청, 평안, 전라도까지 행궁이 확대되었다.

세종때부터 배릉의(拜陵儀)와 산릉친행의(山陵親行儀)가 만들어지면서 행궁에서 재숙(齋宿)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는 고려시대의 배릉의에 이은 것이지만, 황제제가 아닌 제후례에 입각하였다. 또한 세종때에는 온천을 행차하기 위한 온양, 청주(초수), 이천, 진위, 직산, 수원, 광주, 과천 행궁 등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임금이 행궁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지자 행궁에서 성절에 하례하는 의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세조때에는 순행을 위한 개성, 평양, 입콧과 온천을 위한 온양, 고성 행궁이 보이며, 성종때에는 통제원, 광탄, 낙생 행궁, 풍양궁이 등장한다. 중종때부터는 배릉을 위한 행궁으로 풍양궁이 확인된다.

임진왜란은 선조의 파천으로 인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새로운 행궁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에 따라 선조의 복상은 고양, 파주, 개성, 영변, 영유, 강서, 평양, 의주 등지를 중심으로 행궁이 설치되었다. 특히 환도한 선조가 궁궐이 불타자 정릉동 월산대군의 옛 집 명례궁을 정릉동 행궁으로 삼아 궁궐로 활용하였다. 이는 서울에 행궁이 만들어진 첫 사례였다. 또한 광해군대에는 정릉동행궁을 경운궁(慶運宮)으로 개칭하였다. 행궁이 정궁으로 승격된 유일한 사례다.

전란에 따른 행궁은 인조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강화와 남한산성에 새로이 행궁을 중수하거나 새롭게 조성하였다. 또한 1640년에는 호남관찰사 원두표가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의 격포에 행궁을 건설하였다. 효종때에는 제물포진에 있던 수군만호를 강화도로 옮겼고, 북벌을 위해 제물포에서 강화로 가는 수로를 개척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시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을 월미도에 세웠다. 현종때에는 치료목적의 온양, 수원 행궁이 확인되며, 숙종때에는 장릉, 후릉, 제릉 참배를 위한 파주, 풍덕, 자연도, 인천, 월미도, 영종도, 과천, 수원, 진위, 직산, 천안, 온양 행궁에 행차하였다.

영조때에는 숙종에 이어 배릉을 위한 행차가 많았다. 남한산성, 이천, 광주, 고양, 파주 행궁과 함께 사묘(私廟) 행궁인 육상궁행궁(毓祥宮行宮)이 등장한다.²⁵⁾ 당시 사친묘(私親廟)에 유숙하는 것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²⁶⁾ 친모인 숙빈최씨를 전배하기 위한 영조의 효심은 도성내의 육상궁행궁을 탄생시켰다. 이는 선조대 궁궐이 불타 정릉동행궁을 만들어 사용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영조가 사친묘인 육상궁에 전배하고 그 곳에 유숙함으로써 행궁을 만들어 낸 선례는 후일 정조가 사도세자의 전배를 위해 화성행궁을 건설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밖의 고양, 이천, 파주, 영종도, 온양, 남한산성, 북한산성, 김포, 풍덕, 개성부, 장단, 격포, 수원, 진위, 직산, 유포 행궁 등이 확인된다.

정조는 영조에 이어 영릉(寧陵)과 영릉(英陵) 전배를 시작으로 경기 일대의 선왕들의 능침(陵寢)과 소녕원(昭寧園), 순회묘(順懷墓)와 같은 원묘의 행행을 이어갔다. 특히 사도세자의 사묘인 영우원을 화산에 옮기는 동시에 화성행궁을 조성함으로써, 원행을 위한 행궁을 세우되, 유수부로 승격함으로써 행궁의 위상을 높여나갔다. 현릉원을 행차하기 위해 종래 과천로와 달리 시흥로를 새로이 건설하고 시흥, 안양, 사천(사근참), 과천 행궁 등을 새로이 조성하였다. 또한 양천, 김포, 부평, 안산 행궁이 조성되었다. 이외 남한산성, 이천, 여주 행궁 등이 이용되었다. 정조 사후에 화성 행궁 옆으로는 화령전이 세워졌다. 이는 후대 국왕들이 지속적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배경이 되었다.

25)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한편, 영조의 사친묘는 영조1년에 조성하였으나, 육상궁의 묘호가 만들어진 것은 20년 뒤의 일이다. 기록상으로 육상궁행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영조 29년의 일이다(<<승정원일기>> 1098책, 영조 29년 9월 11일 (계해).

26)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9일(기사). <<영조실록>> 권30, 7년 9월 27일(정해).

정조대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은 계속되었고, 이를 위한 행궁도 꾸준히 세워지고 중수되었다. 이에 따라 제왕들의 능행도 지속되었다. 근대이후 국권 위기 속에서 행궁은 더욱 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서경의 평양행궁에 이어, 1905년 개성의 대홍산성 행궁이 마지막으로 중수된 것도 그같은 배경을 깔고 있었다. 이처럼 행궁이 지속되었던 것은 행궁이 단순히 국왕의 출궁시 머무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국가체제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하면, 행궁은 곧 지역에 살아있는 또하나의 왕실의 권위와 안녕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4) 화성행궁의 특성

행궁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행행시 머무는 임시적 공간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행궁을 유지하기 보다는 기존의 관아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독자적인 행궁으로만 사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행궁은 지방 관아를 겸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조선의 행궁은 크게 왕실가족의 치료와 휴양을 위한 온천 행궁, 수도권의 보장처인 유수부 행궁 내지 산성행궁, 능행 또는 원행을 위한 능행 행궁, 어진 보장을 위한 어진 행궁, 기타 강무와 순행,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행궁들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화성행궁은 능행을 위한 행궁의 성격을 뚜렷히 갖는다. 화성행궁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8세기말에 중흥군주 정조가 세운 화성행궁은 행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자랑한다. 화성행궁의 규모(576칸)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시흥행궁의 규모(114칸)나 그보다 앞선 시기에 지은 북한산성 행궁의 규모(129칸)이나 남한산성 행궁의 규모(227칸)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한 규모는 행궁이 수원유수부의 기능을 겸하는 동시에 후일 정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고려된 것이었다. 다른 행궁들이 능행이나 피난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 궁궐로서의 기능을 염두했던 것과 구별된다. 또한 다른 행궁이 지어진 후 갈수록 행궁의 기능보다도 읍치로서의 기능에 머물렀던 데에 비해 화성행궁은 행궁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더구나 정조 사후 화령전의 건설됨으로써, 화성행궁은 끊임없이 중수되고 한편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행궁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정조 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정성이 기울여진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화성행궁의 정체성은 18세기말 조선을 이끌어갔던 콘트럴타워였다. 우선 행궁의 좁은 의미로서의 정체성은 크게 행궁, 유수부, 화령전으로 구체화된다. 그것은 왕궁으로서의 기능, 수원을 다스리는 관아로서의 기능, 정조를 기리는 제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령전은 정조 사후에 추가된 공간이지만, 정조가 세운 행궁과 함께 정조의 얼이 살아있는 행궁의 한 몸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화성 성곽으로 보호받으며 후대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화성행궁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간적 정체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정체성은 행궁을 중심으로 화성 성곽, 읍건릉, 만석거와 대유둔 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평산성의 신도시로서 18세기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군사시설을 갖추어 자체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치군사적 기능, 사도세자와 정조가 묻힌 왕릉을 참배하기 위한 행궁적 기능, 신도시 백성들의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자급자족적 기능을 말해준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행궁의 정체성은 광주, 개성, 강화와 함께 유수부로서 수도 한양의 보장처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성행궁은 단순한 지역의 행궁이 아니라 18세기말 조선의 수도권 일대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문화를 작동시켜 나갔던 콘트럴

타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화성행궁은 중세 사회 속에서 근대 사회의 의미를 꿈꾸는 미래의 공간이었다. 사실 화성행궁은 원행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단순히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1795년 8일간의 화성행차와 그 기간 동안에 베풀어진 현릉원전배, 과거시험, 양로연, 사미각종 의례와 행사들은 그동안 실학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경험, 효의 윤리와 실천, 군민동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조의 개혁의지가 응축된 살아있는 문화축제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은 18세기 군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공간이었고, 민심화합의 공간, 왕실문화와 민중문화가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융합의 공간이었다. 이는 이미 중세의 공간인 동시에 근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화성행궁은 조선 행궁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표적인 행궁이었다. 특히 화성행궁은 수원의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정조의 치밀한 계획 속에 완성된, 국왕이 손수 계획하고 현판까지 준비하여 완성한 조선 유일의 행궁이었던 것이다.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꿈꾸는 공간, 꿈만 꾸는 공간이 아닌 실천하는 공간, 현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공간, 그것이야 말 화성행궁이 갖는 진정한 가치요 의미인 것이다.

4. 화성행궁의 문화공간 활용과 미래가치

지난 1997년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그 이름을 알렸다. 그로부터 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원의 얼굴’이 되었다. ‘수원의 얼굴’이 화성이라면, 행궁은 ‘수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이 본래 행궁과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기 때문이다. 마치 심장이 뛰어야 생기가 돌아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행궁은 화성 성곽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원리다. 훼손된 지 100여년 만인 지난 2003년에 1단계 마무리된 화성행궁 복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원의 심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아직 행궁 복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화성행궁은 복원한 뒤 수원의 중심공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나갔다. 원래 화성 성곽도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처참하게 파괴된 뒤에 국가적 관심과 노력으로 원형의 형태를 복원한 건축물이다. 18세기말 정조시대의 산물이지만, 오늘에 와서 다시 그 원형성을 회복한 셈이다. 그 결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다. 하나는 18세기말의 화성이 동시대 세계의 성곽들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재발견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재의 복원이 갖는 가치 역시 결코 작지 않다는 경험을 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1997년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화성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에 국가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곧이어 2002년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화성과 화성행궁의 원형 복원은 <<화성성역의례>>, <<원행을묘정리의례>>와 같은 귀중한 기록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록은 단순히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낼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위의 두 의례를 포함하여 <<의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은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뛰어난 기록이다. 바로 그러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복원을 시도한 것이다. 이 과정이 곧 ‘기록의 입체화’다.²⁷⁾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수원에는 과거 옛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다. 18세기말에 새로운 꿈의 도시로 탄생한 수원의 옛 공간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기록유산이야말로 수원을 영원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이다.

실제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지역에서 역사문화도시를 꿈꾼다. 이를 위해 관민이 함께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 근원적 욕망은 지역문화의 원형 내지 상징을 발견하는데 있다. 지역의 정체성에 근간이 되는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상징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발견하는데 충력을 기울이는 것이다.²⁷⁾ 그것은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지역과 그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체성의 근원이자 새로운 삶과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넘어 창조도시를 꿈꾸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원형을 찾고 발견하는 과제는 쉽지 않다. 설령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원천 내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로 기록의 부재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원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정조시대가 남긴 수많은 문헌자료를 통해 수원의 옛 도시의 원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처럼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진 소중한 기록유산의 존재야말로 수원의 가장 큰 보물이다.

‘기록의 입체화’를 통해 복원된 행궁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즉 문화의 생기화다. 예컨대 전통 문화의 경우, 구조와 표상이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어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로 전환하는 현대화 작업을 말한다. 어느 문화도 마찬가지로 선조들은 우리에게 유적과 기록을 남겼다. 유적은 파괴되고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아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기록의 입체화’가 그랬듯이, ‘입체의 생기화’ 또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행궁의 생기화 작업을 위해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등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이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좀더 깊고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동안 화성행궁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듯이, 복원한 행궁의 생기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입체화에 어려움 만큼이나 생기화 문제 역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귀한 보물은 귀하게 쓸 때만 가치를 영속시킨다. 이는 귀한 보물을 아껴 활용하기를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귀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활용하자는 의미다. 화성 행궁의 지속가능한 가치는 생기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너무도 서둘러 상품화를 바라거나 관광화, 축제화를 꿈꾸는 일은 신중함을 요한다. 소비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화와 관광화, 축제화는 곧 문화유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또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단기간의 유흥’ 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성행궁에 대한 본질적 가치의 무대화 내지 배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증이 결여된 전시와 재현 및 이벤트 행사 등 활용에 치중한 결과 왕궁에서는 행궁의 품격과 진정성을 거의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화성행궁의 가치의 발굴과 축적의 필요성은 경시한 채, 축제처럼

27) 심승구, <디지털시대 역사학의 소통과 전망><<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인문학 제 분과와 CT>> (문화관광부 주최 2007년도 제1차 CT포럼 발표문), 2006.

28) 심승구, <백제문화 콘텐츠 개발의 현황과 과제><<충남의 역사문화기반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충청남도, 문화관광부, 2007. 참조.

인공적인 전통의 진행과 같은 현대화에 대한 강조는 자칫 본말을 전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행궁의 경우에 행궁이 무엇인지, 그러한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같은 최소한의 문제에 대해 성찰과 개념들이 천착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통을 소비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상품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단기간의 성과주의 내지 업적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성행궁의 가치와 문화공간을 체계적이고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5. 나머지 말

올해는 화성행궁이 지어진 지 21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화성행궁은 1911년 조선읍성 철거령에 의해 훼손과 복원이라는 커다란 골곡과 변화를 경험해 왔다.²⁹⁾ 이처럼 화성행궁이 겪은 지난 200여년의 성쇠는 근현대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곳곳하게 다시 일어난 지역민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매우 닮아있다. 화성행궁을 비롯한 많은 전통 문화유산들은 식민지와 근대화, 전쟁과 산업화라는 미명아래 허물어지고 일그졌다가 이제서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수원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이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귀중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더구나 문화유산들은 문화가 산업이 되는 콘텐츠시대의 무한보고라는 사실로 다가온다. 그런 점에서 화성행궁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반추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방향타로 다가온다.

18세기말 조선에서 새로운 중흥의 시대를 꿈꾸던 화성행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먼저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 효심을 실천하면서도 군민동치(君民同治)의 시대정신, 개혁과 실학을 통한 위민정신 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향으로 짓는 궁궐의 관행과 달리 화성행궁은 동향으로 건설하였다. 이는 팔달산의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어떤 이는 혹 행궁이 왜 그렇게 왜소하고 소박한가를 물고 실망할지도 모른다. 국력이 약했던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일 정조가 사치와 탐욕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유교적 정치철학이 사치와 탐욕을 용납지 않은 것이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흐뭇함과 아울러 아쉬움도 남는다. <<화성성역의궤>>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 보이는 행궁의 많은 부분이 복원되지 않거나 잘못 복원된 부분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한 부분이 복원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은 참으로 다행하고도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복원과정에서 엄밀한 고증이 부족하여 실제와 다르게 복원된 건물

29) 다만, 여기서 유념할 문제는 일제에 의해 화성행궁이 무조건 파괴되었다는 관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수원 화성행궁에 설립된 자혜병원의 경우 식민지가 되기 직전인 1910년 7월 22일에 세워진다. 한 해전 1909년 지방 3곳에 처음 설립된 데 이어 수원을 비롯한 14곳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근대식 병원과 학교의 설치가 행궁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훼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 확인된다. 이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 생활과 연결된 별주나 장독대, 측간, 마굿간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행궁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궁은 국왕이 이곳을 찾았을 때 생활을 영위하던 공간이다. 또한 평소에는 수원유수의 일상공간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먹고 자면서 살아갔음을 말해주어야 한다. <<화성성역의궤>>에 보이는 취병이나 판장 등이 없는 점도 아쉽다. 머지않아 원래대로 복원되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18세기말 찬란한 유교문명을 건설한 조선의 진정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442-08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번지
전화 : 031)244-2161~3 팩스 : 031)244-2164